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당신(堂神)본풀이 백주또신화의
공동창작 연극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재숙

2015년 8월

제주 당신본풀이 백주또신화의
공동창작 연극스토리텔링

지도교수 김 맹 하
이 재 숙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이재숙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5년 8월

Collaborative Creation Play of Jeju Myth

Dangsin-Bonpuri Baekjutto

Lee, Jae-Suk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aeng-H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5.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Date _____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ii
Abstract	x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본풀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연극스토리텔링	5
1. 본풀이와 문화콘텐츠	5
1) 텍스트 콘텐츠	7
2) 공연·전시 콘텐츠	10
3) 시청각·디지털콘텐츠	17
2. 본풀이와 연극	19
1) 굿과 연극의 상관성	19
2) 본풀이와 연극의 상관성	21
3.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스토리텔링과 공동창작	24
1) 본풀이 극본의 유형	24
2) 본풀이를 활용한 공동창작 연극의 필요성	27
III. 송당본풀이 여신 백주또의 스토리텔링	29
1. 당신본풀이와 스토리텔링	29
1) 당신본풀이	29
2) 당신본풀이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31
2. 당신의 원조, 백주또	32
1) 당신의 어머니	32
2) 송당본풀이의 서사와 여신 백주또	33

3) 자청비와 백주또 - 백주또 신화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37
IV. 당신본풀이 백주또 신화를 활용한 공동창작연극	
- <천년의 사랑 백주또>	39
1. 공동창작진의 구성에서 공연까지	39
2. 백주또의 원형과 재해석	42
1) 백주또,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하다	42
2) 백주또, 세상을 보듬은 어머니	44
3) 무대에서 형상화한 원형	48
3. 평가	51
V. 결 론	55
참고문헌	58
부록	61

표 목 차

<표 1> 일반신본풀이 일람	5
<표 2> 웹툰 <신과함께> ‘신화편’ 구성과 원천신화	10
<표 3> 본풀이를 활용한 도내 공연단체의 공연	12
<표 4> 본풀이 진후에 삽입되는 연극 형태의 굿놀이	22
<표 5> 본풀이 극본의 유형 분류	25
<표 6> 당신본풀이 일람	29
<표 7> 극본 공동창작팀의 구성	40
<표 8> <천년의 사랑 백주또>공연 내역	41

그림 목 차

<그림 1> 백주또 신화 서사구조분석	35
<그림 2> 공연포스터	39
<그림 3> 농사를 선택한 백주또	45
<그림 4> 무대사진	48
<그림 5> 백주또 관련기사 - 시사제주	51
<그림 6> 관람평 - 블로그	52
<그림 7> 관람평 - SNS	53
<그림 8> 관람평 - 극단카페	54

【국문초록】

제주 당신본풀이 백주또신화의
공동창작 연극 스토리텔링

이 재 숙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김 맹 하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 제주는 신화가 현재에도 구비전승 되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박물관이다. 제주의 신화는 ‘본풀이’라고 불리는데 본풀이에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이야기하는 일반신본풀이, 마을의 신인 당신(堂神)들의 이야기인 당신본풀이, 한 집안의 수호신의 이야기인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제작된 문화콘텐츠를 텍스트콘텐츠, 공연·전시콘텐츠, 시청각·디지털콘텐츠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풀이를 활용한 상당수의 문화콘텐츠들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이야기,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이야기에 편중되어 있고 당신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와 달리 그 주인공들이 더 자유롭고 본

능에 충실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그동안 신화와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나 무속신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는 계속 되어 왔지만 당신본풀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연구는 처음이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굿은 연극과 상관성이 아주 높다.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극이 실행되기도 한다. 제주의 굿에서 심방이라고 불리우는 샤먼은 굿의 배우이고 굿판은 무대이며 단골이라 불리는 신앙민은 굿의 관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풀이는 굿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은 신화의 전승과 함께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전하는 중요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 극본 유형 4가지를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공동창작의 필요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공동창작팀의 구성에서 공연까지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본풀이의 원형과 현대적 의미를 구현한 극본 창작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극본 공동창작에 참여한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최초로 당신본풀이를 활용한 연극이다. 백주또는 송당본향당에 좌정한 여신으로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한 급진적인 여성이다. 또한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자가 삼백 일흔 여덟이나 되는 다산의 신이다. 살육을 하는 사냥 대신 농사를 주장한 생태의 여신이고 자식과 세상을 품는 어머니 여신이다.

신화전문가, 연극연출가, 시인, 스토리텔러로 구성된 극본 공동창작팀은 백주또 신화의 원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백주또 여신이 주는 현대적 의미를 극본에 구현하였다. 관객들은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파괴와 살육을 용서하지 않는 자주적이면서도 단호한 여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식과 세상을 보듬었던 백주또 여신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아들을 살려내지 못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바다 속에 잠긴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했다.

앞으로 당신본풀이를 포함한 다양한 본풀이가 연극으로 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가 향후 본풀이를 활용한 공동창작 연극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작품, 더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풀이가 가진 에스프리를 살리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연극스토리텔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llaborative Creation Play of Jeju Myth
Dangsin-Bonpuri Baekjuttoo

Lee, Jae-Suk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aeng-Ha

Jeju residence have traditionally interacted with the island's 18,000 god and goddesses that has been transmitted orally. It called a living museum myth. The myth of Jeju is called Bonpuri. There are stories of general god 'Ilbansin Bonpuri' taking about natural phenomena and humanities phenomenon, the story of the god of the town 'DangSin Bonpuri', the story of one family's ancestral guardian 'Josangsin Bonpuri'.

In this research, the cultural content produced by the prototypical of Bonpuri reflect looked classified by 'Text contents', 'Concert·Exhibition contents' and 'Audiovisual·Digital contents'. Many of the cultural contents are utilizing the Bonpuri. It is concentrated Jachungbi story of 'Saegyung Bonpuri'

and Onuly story of 'Onechungang Bonpuri'. I can see that already insufficient levels storytelling about Dangsins(god of the town). Dangsins unlike general god. That storytelling is an interesting character because they can more freely and show the faithful face the instinct. Meanwhile myth and cultural content research utilizing the research on cultural myth and shamanism have been content to continue. But research using the cultural content 'Dangsins Bonpuri' is the first time the significant of this study.

Gut is Shamanistic ritual in Korea. Gut has a very high correlation with play. Simbang(shaman)is an actor in the Gut, Gutpan(the yard of Gut)is the stage and faith is called a regular audience. Bonpuri also can be called transcript of the Gut. Therefore this Bonpuri using theater can be an important cultural content to convey meaning with the modern tradition of myth.

In this research, I deducted one advantage of the theatrical screen play derived Bonpuri of four kinds of types. It presented with the required type of co-creation. The case was presented to the performances in the construction of co-creation team presented the case of a play created and implemented the modern sense of this circular Bonpuri.

<Love of the millennium, Bacjutto> is the first utilizing play. Bacjutto is a radical women who led the start and end of the goddess sitting on 'Songdang Bonhyang Dang'. she had also the son 18, daughter 28 and grandson 378 that was the goddess of fertility. Ecological farming instead of slaughter hunting goddess who claimed to bear a child and a mother goddess of the world.

Mythology expert, theater director, poet, co-creation team of storytellers were yet faithful to the prototype of the modern meaning to the implementation Bacjutto mythology the goddess in a play. The audience could see the goddess decisive, yet independently led to her fate and do not excuse the destruction and slaughter. And the goddess saw the child with the world watching the stones cry wont look to spare her son heated into the sea to go. That scene is also Korean mother's sorrow who can not save their child I

from the Sewol-ferry.

Forward Bonpuri is expect to be produced by a variety of plays including Dangsın Bonpuri. I hope that this study is the co-creation data of storytelling using Bonpuri theate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인 제주는 신화가 현재에도 구비전승 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겪은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에게 세상 속 저마다의 위치와 진정한 방향을 찾아 주는 것이 신화”(카렌암스트롱, 12)라는 카렌 암스트롱의 말은 유명 관광지로 포장된 제주가 아닌 구비신화의 중심지로써 제주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서구 자본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가 부른 자연의 파괴와 생명경시 문제를 짚어내고 그 해결의 방향을 제주의 신화 ‘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풀이란 신(神)의 근본 내력, 행적을 해석 설명하는 이야기”(현용준, 1996, 227)다. 신의 근본(根本)을 풀어내는 까닭은 신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천착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신화 ‘본풀이’ 중 각 마을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당신(堂神)본풀이는 일반 본풀이보다 훨씬 먼저 형성되었고 제주도에만 있는 신화이다(조동일, 48-49 참조). 특히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本鄉堂)은 신당(神堂)의 메카로 불리우는 곳으로 지금도 해마다 같은 날¹⁾에 사제인 심방에 의해 굿이 열리고 현재에도 구비전승 되고 있다. 송당본풀이의 여주인공 백주또는 ‘당신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여신으로 수렵 대신 농업을 보급하고, 아들 열여덟, 딸 스물 여덟에 손자가 삼백 일흔 여덟인 다산(多産)의 신이며, 부도덕한 남편에게 산 가르고 물 가르듯 갈라지듯 갈라서자고 선언한 급진적인 여신이다. 송당본풀이 백주또 신화는 수렵생활에서 농경문화의 이동을 그려낸 신화이지만, 동물을 먹을거리로

1) 송당리 본향당에서는 매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신과세제(음력 정월 14일)와 영등굿(2월 14일), 마불림제(7월 14일), 시만국대제(10월 14일)를 올린다. 이 가운데 정월의 신과세제가 가장 크게 치러지는데,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서 사는 마을 출신자들도 대거 참석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참조)

보고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며 인간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다른 생명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현대의 근본 문제를 이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본풀이 속에서 아들을 바다로 떠나보내고 끝내 그 아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머니 백주또의 이야기는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삼백 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곤경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방법은 과학의 힘으로도, 문명의 힘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신본풀이가 실제로 구연되는 본향당으로 가서 심방이라 불리우는 사제의 요령(搖鈴)소리를 들으며 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화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근본을 풀기 위해 당신이 좌정했다는 ‘본향당’에 찾아가라면 주저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미 현대인들은 논리적 사고인 로고스에 단련되어 있고, 기존 종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본풀이가 예술장르로 재창조되면 시각은 달라진다. 본풀이의 원형을 살려내며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창조되는 스토리텔링이라면 그동안 민속학자의 채록이나 문헌 속에 잠자고 있던 신화를 깨워 현대인과 만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당신앙(堂信仰)과 당신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²⁾ 제의가 열리는 당에서 직접 채록하고 이를 문헌으로 남긴 학자들은 여럿 있으나 이를 문화원형으로 삼아 문화콘텐츠로 개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텍스트나 공연·전시물 등에서 다른 대부분의 작품의 원천소스는 세경본풀이 ‘자청비신화’나 원천강본풀이 ‘오늘이’이야기 등 소수의 일반본풀이³⁾에 편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스토리텔링 작품들을 콘텐츠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세의 여러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을 주

2) 대표적인 당신앙 및 당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지난 50여 년동안 50여 편의 연구 논저가 있다. 대표적으로 도내민속학자 진성기, 현용준, 문무병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용준은 2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들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에 정리 수록하였으며, 진성기는 10여편의 논문들을 『남국의 무속』에 요약하였다. 또한 문무병은 당신앙과 당 본풀이를 한 마을의 신앙체계로 고찰하고 총체적인 당신앙 고찰을 위해

『제주도본향당신앙과 본풀이』를 펴냈다 (문무병, 2008, 31-33 참조).

3) 제주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이고 당본풀이는 도내 각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堂神)의 내력담,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 내지 일족(一族)의 수호신의 내력담이다. 일반신본풀이가 완전한 설화구조를 이루고 있어 어느 심방이나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본풀이는 그 마을의 전속사제무(專屬司祭巫)라 불리는 당매인심방에 의해 불리우고 조상신본풀이는 그 집안의 단골심방이 아니면 모르게 되어있다 (현용준, 1992, 19 참조).

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당신본풀이를 문화원형으로 삼은 문화콘텐츠와 상관성이 높은 공연물은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굿이 가진 연극성을 고찰해 보면 본풀이는 굿의 대본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본을 활용한 연극이 제작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다. 본 연구자가 공동창작에 참여한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당신본풀이를 문화원형으로 삼아 최초로 무대에 올린 연극이라는 의의가 있다. 신화전문가와 작가, 연극연출가, 스토리텔러가 참여하는 공동창작을 통해 신화의 원형을 살려내어 제주의 무형유산인 본풀이를 전승하고, 창조적 변용을 통해 현대인의 감성을 두드리며 우리가 당면한 근본문제를 천착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주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제작된 문화콘텐츠를 고찰해 보기 위해 선행연구논문과 웹문서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최혜실(2006)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에서 문화콘텐츠를 공통요소의 도출과 상호작용에 따라 텍스트콘텐츠, 디지털이전의 비텍스트콘텐츠, 시청각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등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본풀이 관련 콘텐츠를 텍스트콘텐츠와, 전시·공연콘텐츠, 디지털·시청각콘텐츠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행논문으로는 세경본풀이 여신 자청비를 원형으로 삼은 문화콘텐츠를 조사한 바 있는 송태현(2009)의 연구와 제주장편소설에 수용된 설화의 양상을 연구한 이대영(2012), 웹툰 <신과 함께>분석을 중심으로 무속신앙을 원천소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유예(2015), 굿의 현대 극 장르로 수용된 이연주(2006)의 연구 등을 참조하였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주제어 검색으로 본풀이와 관련 콘텐츠를 조사 수집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연물의 경우 제주지역 6개의 공연예술단체의 연혁 자료를 직접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와 관련하여 당신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콘텐츠인 경우는 관련 분야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관련 자료를 연관검색하여 작품을 직접 섭렵하고 분석하였다. 그 범위는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 제작된 아마추어의 콘텐츠나 교육용 자료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제외하였고 전문예술인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본풀이와 관련하여 현용준, 진성기, 문무병의 연구를 참조하였는데 당신본풀이는 ‘본향당신앙’을 집대성한 문무병(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당신본풀이와 굿의 연희 현장에서 벌어지는 연극적인 요소를 놀이굿, 민속극으로 규정지어 연구한 문무병(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풀이와 연극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송당본향당본풀이인 백주또 신화의 공동창작 연극 스토리텔링을 위해 본풀이를 활용한 극본의 유형을 4가지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신화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창작방법의 유형을 도출한 백성과(2004)의 연구와 서동원(200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본풀이의 해석과 창작자의 변용 관계에 따른 분류로 원작의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는 제 1유형과 본풀이의 서사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제 2유형의 경우는 본풀이 전승의 목적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공동창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풀이의 원형을 살려내고, 굿의 현장성을 무대로 승화시키며 현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신화가 우리 곁에 있는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창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참여한 공동창작 연극 ‘백주또’를 사례로 제시하며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공동창작단의 구성에서 공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극본의 공동창작과정에서 백주또의 원형과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관련 내용을 직접 발췌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극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언론의 관심부터 관람 후 블로그, SNS, 극단 게시판에 올라온 관객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고 연구자의 평가와 제언을 첨가하였다.

송당본풀이 백주또 신화는 현용준이 채록한 남무(男巫) 이병춘 분이 실린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1992)를 저본으로 삼았고 문무병(2008)의 분석을 참조하였으며 백주또신화의 서사분석은 반다이크(Van Dijk)의 서사구조분석법을 활용하였다.

Ⅱ. 본풀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1. 본풀이와 문화콘텐츠

신들의 내림담(來歷談) 본풀이가 심방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제주는 우리나라 신화의 수도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 “그리스로마신화가 기록된 것이라면 제주의 신화는 구비전승되는 것으로 최고라 할만”(허남춘, 25)하다. 본풀이를 구술하는 많은 심방들이 세상을 떠나고 살아있는 심방들도 노쇠하여 채록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심방들에 의해 구비전승 되고 있으니 제주는 가히 살아있는 신화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구송, 전승되고 있는 일반신본풀이는 이 세상의 자연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여러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어 세상사의 근원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신화라고 할 수 있다. 현용준은 아래와 같이 ‘일반신본풀이’를 일람하고 있다.

<표 1> 일반신 본풀이 일람

본풀이	神名
천지왕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초공본풀이	초공(본맹두·신맹두·삼맹두)
이공본풀이	이공(할락궁이)
삼공본풀이	삼공(가른장애기)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 구천왕할망 대별상마누라
차사본풀이	강님
지장본풀이	지장애기

스만이(차사)본풀이	스만이
세경본풀이	자청비
문전본풀이	녹디생인(남선비의 末男) 남선비 여산부인(남선비의 처) 노일제대귀일의 딸(남선비의 첩)
칠성본풀이	칠성(蛇神)
세민황제본풀이	세민황제
원천강본풀이	원천강

*출처: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재구성

제주의 신화 ‘본풀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린 역할은 민속학자가 아닌 본풀이를 원천소스로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변용시킨 예술가가 맡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신본풀이’다. 이를 텍스트콘텐츠, 공연·전시콘텐츠, 시청각·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⁴⁾ 콘텐츠 중에서 전문예술가가 아니거나 전집류나 시리즈물에 포함된 학습용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도외에서 제작된 제주신화 ‘본풀이’를 활용한 콘텐츠는 타 작품과 확연한 변별력이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정리하였고 도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초중고 학교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콘텐츠를 제외하여 전문 예술가들이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을 정리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다룬 신화를 극으로 활용한 공연물의 경우는 도내 각 극단과 공연단체의 연혁을 조사해 시기

4) 최혜실은 문화콘텐츠를 공통요소의 도출과 상호작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텍스트콘텐츠- 출판, 신문, 잡지, 출판만화
2. 디지털이전의 비텍스트 콘텐츠-공예물, 미술품, 공연
3. 시청각콘텐츠: 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4.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모바일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103)

이 분류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디지털 이전의 비텍스트 콘텐츠를 공연·전시콘텐츠로, 디지털콘텐츠와 시청각콘텐츠로 통합하여 텍스트콘텐츠, 공연·전시콘텐츠, 디지털·시청각콘텐츠로 분류하였다.

별로 상세히 정리 분석하였고 타 콘텐츠의 경우에도 ‘당신본풀이’와 관련한 작품은 상세히 고찰하였다.

1) 텍스트콘텐츠

제주신화하면 ‘설문대할망’을 떠올리고 콘텐츠역시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980년대부터 본풀이에 제주의 신들이 등장하는 출판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옛이야기시리즈에 포함된 동화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화책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중에서 의미 있는 작품은 2012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발간한 단행본 동화책<천지왕본풀이>다.⁵⁾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이야기를 담은 <박씨같이 고운 발로 칼 선 다리 건너니>⁶⁾도 출간되었는데 이 작품의 특이할 점은 강을생과 안사인 심방의 구술을 원형 그대로 책에 담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만 쉽게 풀어썼는데 창작자의 상상력으로 변용을 하지 않아 무가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주력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제주본풀이의 원형을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제주 신화 본풀이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단편소설의 주인공이 되거나 모티브가 되었다. 이 중 2005년에 출간된 이석범의 『할로영산』은 제주도 신화 10편을 소설로 형상화 한 작품집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여류소설가인 한림화의 작품 속에는 본풀이에 나온 신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대적인 인물들이 재창조하였는데 세경본풀이 여신 자청비의 이름을 그대로 딴 단편 「자청비」에서 자청비의 강인한 여성성을 해녀 김달린으로 그려냈다. 한림화의 대표작 『한라산의 노을』 역시 ‘아기장수설화’와 ‘설문대할망설화’, ‘광정당설화’를 차용하여 강인하고 비범한 작중인물을 창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기장수설화’와 ‘설문대할망설화’는 본풀이가 아니라고 해도 ‘광정당설화’는 당신본풀이의 주인공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설가 현길언의 『자청비, 자청비』는 세경본풀이 자청비의 서

5) 동화작가 장수명씨의 글과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 김원정씨의 그림이다.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니라 도내 도서관과 학교 지역아동센터등에 기증 돼 제주설화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6) 2009년에 나라말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조현설이 글을 쓰고 홍지혜가 삽화를 그렸다.

사구조를 작품 속에 충실하게 담아내면서도 농사의 씨가 아닌 평화의 씨를 뿌린 것으로 변용하고 있다. 현길언의 『한라산』은 일반본풀이가 아닌 당신본풀이를 차용하고 있다. 작가는 ‘토산당본풀이와’과 ‘광정당본풀이’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권력 앞에 선 제주사람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다(이대영, 2012, 349-368참조). 제주에서 유년을 보낸 소설가 이재홍의 소설집 『팔녀각』에 실린 단편 「여드렛당의 숙명」에서는 뱀신이 따라다닌다는 토산 여인이 여드렛당의 뱀신을 모시지 않아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딸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섬뜩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현길언의 『한라산』과 이재홍의 『팔녀각』에 실린 「여드렛당의 숙명」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린 당신본풀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의 신들은 시(詩)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다. 1980년에 문충성의 『자청비』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 들은 자청비이야기를 제주어가 깃든 장편 서사시로 그려내었는데 자청비가 겪은 고난과 극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송태현, 144-145참조). 내용이나 소재, 그리고 심방의 화법이 그대로 삽입되는 시도 여러 편이 있다. 특히 제주가 본향(本鄉)이고 섬의 역사와 현실에 베인 상처를 이야기하는 시인들의 시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예컨대 김경훈의 시 「골령골 영가 분부사뵈」의 시작과 끝은 심방의 사설조(辭說調)다. 4.3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골령골 처형장에서 집단 사살되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넋이 본풀이에 나오는 ‘서천꽃밭’에서 천수를 누리기를 기원한다(김경훈, 2014, 103).

당신본풀이 전문가인 문무병의 시에서는 심방이 굿을 하며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가 시어로 사용된다. 그의 시 「미여지벵뒤에서 당신을 보내며」는 열나흘 동안의 큰 굿을 마치고 만난 노랑나비 한 마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현신(現身)이며, 그가 아내를 만난 곳은 굿판이지만 실제로는 이승과 저승의 중간지점이자,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다란 벌판, ‘미여지벵뒤’라고 표현했다 (문무병, 2013, 97-98 참조).

여류시인 김병심은 시집 『신, 탐라순력도 新, 耽羅巡歷圖』에서 본풀이에 나온 여신들을 오늘날 제주의 여인으로 형상화하였다. 「아이고 봄 잠 오래도 잤다」⁷⁾

7) 이공본풀이에서 여신 원강압이는 죽었다가 아들 한락공이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재생의 꽃들로 깨어나게

라는 시에서는 제주 ‘이공본풀이’의 여신 원강암이의 삶과 무조건적인 애착을 가진 제주여인을 노래했고, ‘배꼽 아래 선그릇 덕으로」⁸⁾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여신 가문장아이의 삶과 여성의 자부심으로 ‘내 밥그릇을 지키며’ 사는 제주여인의 당찬 삶을 시어로 표현했다. ‘세경본풀이’의 여신 자청비의 서사를 다룬 ‘자청하여 태어난 딸에게」도 흥미롭다. 서천꽃밭의 신기한 꽃의 효능을 오늘날의 성형수술에 비유하며 ‘사랑밖에 모르는’ 현실의 여인들을 질타하고 있다. 송당본풀이의 여주인공 백주또도 ‘땅 가르고 물 가르신 어머니」에 등장한다.

“백호살이 있어 물불 못 가리는 성격이라 아버님의 잘못에 물을 가르신 거예요. 홍염살이 있어 타협을 안 하시니 땅을 가르신 거구요. 욕쟁이 할머니란 평판은 차라리 나아요. 정직하다는 뜻이니깐요”(김병심, 2013, 101).

시인은 여신 백주또를 현실 속의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남편의 잘못에 타협을 하지 않고 땅을 가르 정직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제주의 시인들에게 본풀이는 시적 감성의 원천이자 삶과 죽음, 피안의 세계와 현세를 잇는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만화에서도 제주 본풀이의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김나경의 ‘만화로 보는 우리 신화’에서는 자청비 등 제주의 신들을 변용보다는 원형에 충실하여 본풀이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본풀이를 대중들에게 알린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는 주호민 작의 웹툰 <신과 함께>이다.⁹⁾ 이 작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웹툰 형식으로 연재되었고 완결 후 유료로 전환된 후에도 네이버 완결 웹툰 조회 수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만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한국만화 명작 100선에 선정되었다. 웹툰의 상업적 성공은 영화, 뮤지컬, 드라마, 게임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유예, 5).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신화편’의 대부분 이야기가 제주도본풀이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신과함께> ‘신화편’의 구성과 원천신화 정리한 표이다.

되는데 다시 깨어나며 ‘봄 잠 오래도 잤다’고 한다.

8) 삼공본풀이에서 여신 가문장아기는 부모 덕이 아닌 ‘배꼽 아래 있는 선그릇(여성의 성기) 덕에 산다’고 하여 쫓겨난다.

9) <신과함께>는 웹툰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책으로 출간되어 텍스트콘텐츠로 분류하였다.

<표 2> 웹툰 <신과 함께> ‘신화편’ 구성과 원천신화

구성	원천신화
1. 대별소별전	천지왕본풀이 (제주도 신화)
2. 차사전	차사본풀이 주인공차용
3. 할락궁이전	이공본풀이 (제주도 신화)
4. 성주전	성주풀이 (경기도 신화)
5. 녹두생이전	문진본풀이 (제주도 신화)
6. 강림전	차사본풀이 (제주도 신화)

‘저승편’과 ‘이승편’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현대적 감각으로 창작했으나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강림’역시 제주도 ‘차사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고 보면 작가가 ‘한국의 신화를 재해석한 작품’이라 명시했으나 그 중심에는 제주 신화 ‘본풀이’를 바탕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주의 본풀이가 One-Source가 되어 Multi-Use를 이끈 최초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의 신화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유아에서부터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로 제작되고 타 매체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등장하였다.

2) 공연·전시콘텐츠

제주신화를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화 하는 노력은 미술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주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제주신화전>은 2005년에 시작되었고 2014년 12월에 ‘생명의 숲, 신화의 방’이란 타이틀로 10주년 기념전을 열었다.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미술, 조형미술, 웹툰, 행위예술에까지 반경을 넓혀 다양한 방식으로 신화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2006년 제2회 제주신화전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당신본풀이를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그 속에

담긴 신과 제주의 문화를 조명했다. 10주년 기념전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전시를 갈무리하여 설문대할망이나 자청비등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일반본풀이 속 이미지만이 아니라 당신(堂神)본풀이까지 형상화하였다.¹⁰⁾ 문헌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신화를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제주신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눈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강동균은 2013년에 제주신화이야기 ‘이공본풀이-서천꽃밭이야기’전시회를 연 바 있는데, 다른 신화전(神話展)과는 달리 이공본풀이 서사의 전개에 따라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고, 심방의 본풀이 원형을 살린 스토리북을 함께 발행하였다. 이는 “신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다른 장르에 작용하는 창작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강동균, 73).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많은 시도와 접근이 있었는데 제주신화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이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다. 2010년에는 일반본풀이인 ‘삼공본풀이’가 극단 ‘복새통’에 의해 가족극 <가문장아기>로 공연되었는데 연장 공연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¹¹⁾. 대학로 소극장에서 가장 최근의 공연물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선돌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내 이름은 강’¹²⁾으로 이 작품은 같은 작가와 연출가가 2012년에 초연한 작품을 수정 보완하여 2015년에 다시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원천강본풀이’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이 연극에서 ‘오늘이’는 원천강을 찾아가는 주인공이자 꿈이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이다. 신화의 모티브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신화 속에서 희망의 상징인 ‘원천강’은 현대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죽어 있다. 일반본풀이인 ‘원천강본풀이’가 연극이란 장르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이 사회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 ‘본풀이’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이다. 제주시립예술단에서

10) 2014년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시된 이 기념전 전시의 흐름은 총 5개 신화의 방으로 나뉘 다양한 제주신을 형상화 하였다. 신화의 방1에서는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삼성신화를 형상화하였고 신화의 방2에서는 12본풀이 신, 신화의 방3에서는 마을신 이야기로 당본풀이 신, 신화의 방4에서는 원초적시공간의 이야기로 퍼포먼스, 무용, 연극으로 신화를 풀어내었고 신화의 방5에서는 내 안의 신화라 하여 관람객들에게 신화화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 (<http://blog.daum.net/jejumythart/139>)

11) 고순덕 극본, 남인우 연출

12) 고연옥 극본, 김광보 연출

는 1999년 도내최초로 창작뮤지컬<자칭비>가 제작되어 공연했고, 이는 갈라오페라로 제작되어 수 회 연장공연으로 이어졌다.¹³⁾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에서도 2002년에 <대지의 여신 자칭비>를 마당극 형식으로 공연하였다.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제작 공연되었다. 민족예술단 ‘우금치’는 2008년 4월 대전 스프링페스티벌에서 <우리 신화 이야기>, 2008년 11월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당극을 올렸는데 이 안에 제주 여신 자칭비이야기가 들어있었다. 2011년 제10회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NMTA(New Music Theatre Award)서 뮤지컬 <자칭비, 사랑의 빛깔>이 2등인 인기음악상을 수상하였다.¹⁴⁾

도내 극단 세이레에서도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칭비>로 공연하였다. 세경본풀이를 제주어로 풀어내고 춤과, 음악, 무구(巫具), 무대미술등에서 원형인 ‘굿’을 재현하여 2012년 제7회 고남마루향토연극제 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각본상과 여자연기상까지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¹⁵⁾ 이외에도 ‘세경본풀이’의 자칭비는 다양한 공연물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한국의 대표적 여신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은 제주도내 극단과 예술단체가 제주본풀이를 원형으로 하여 제작 공연한 작품들이다. 극단 이어도, 가람, 세이레와 풍물패 신나락,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의 공연 연혁을 제공받아 정리해 보았다.

<표 3> 본풀이를 활용한 도내 공연단체의 공연

공연단체	공연제목	일시
세이레	자칭비 제9회고남마루전국향토연극제	2012.
	자칭비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세이레아트센터)	2012. 10. 12~13
	백주또 공연장상주단체창작공연	2014. 10. 30~31

13) 제주대학교 문성숙교수 대본, 강문철 작곡, 장수동 무대미술로 1999년 11월 18-19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14) 국민대학 일반대학원 뮤지컬창작 전공에 재학중인 권선영이 극작, 연출을 맡았다.

15) 정민자 각본, 강상훈 연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세이레아트센터) 백주또	
	제1회 전국상주단체페스티벌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2014. 11. 23
	백주또 제2회 제주전통문화엑스포 (컨벤션센터)	2015. 1. 18
풍물패 신나락	신나락 연물굿신불휘 -초공본풀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2011. 12
놀이패 한라산	마당굿세경놀이 총6회초청공연 (낙천리, 제주대학교)	2014. 8. 3.~25 10월, 11월
	세경놀이 제27회민족극한마당공연 (충남보은)	2014. 6. 6~7
	마당굿 세경놀이 현장순회공연 (선홍2 리)	2013. 6
	마당굿 전상놀이 방선문축제 (오라동 방선문계곡)	2013. 5
	마당굿 세경놀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대정읍 안성리, 한림3리)	2012. 10, 12
	인형놀림굿 전상놀이 공연장상주단체사업	2012. 10, 11
	마당굿 세경놀이 공연장상주단체사업	2012. 9
	마당굿 세경놀이 전국마당극축제 공연 (구미)	2012. 9
	마당굿 세경놀이 방선문축제 초청공연 (오라동방선문계속)	2012.5
	마당굿 세경놀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초청공연 (일본 오사카)	2011. 11
	마당굿 세경놀이 마당극제 초청공연 (충북 증평)	2011. 7~10
	영감놀이 광대굿 국제연극제 초청공연 (경기도 수원화성)	2011. 7~10

마당굿 세경놀이 '제주공동체복원을 위한 초청공연' (서광서리, 우도, 북촌리, 보성리)	2011. 7~10
마당굿 세경놀이 제주도의회 20주년기념초청공연 (제주도의회)	2011. 5
마당굿 세경놀이 설문대할망제공연 (돌문화공원)	2011. 4
마당굿 세경놀이 탐라국 입춘굿 놀이 공연 (관덕정)	2011. 4
마당굿 세경놀이 섬과 내륙의 한일연극교류 (일본)	2010. 8
마당굿 세경놀이 현장순회공연 5회 (성읍,구억,신산,상가리,오라3동)	2010.7~9
차사영맞이굿 故노무현대통령 1주기 전야제,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제 (경북 봉화, 레포츠공원)	2010. 5
마당극전상놀이 제22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참가 (부산)	2009. 10
마당굿 세경놀이 탐라국입춘굿놀이공연 (관덕정)	2009. 2
마당극 전상놀이 2008무대공연지원기획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2008. 12
영감놀이 광대굿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 (서울)	2008. 9
마당굿 세경놀이 순회공연 (경북성주, 충북청원, 경북청송)	2008.7-11(순회공연)
마당굿 세경놀이 서귀포시여성농업인한마당초청공연 (서귀포시 표선면)	2008. 6
굿놀이 세경놀이 탐라국입춘굿놀이 (목판아지)	2008. 2
마당극 전상놀이 순회공연	2007. 10~12

(외도,함덕,조수,애월,제주요양원, 조천,가파도,남제주요양원, 선홍,동제주복지관, 환경원광요양원, 낙천)	
마당굿 세경놀이 초청공연 (신성여중)	2007. 10
굿놀이 세경놀이 초청공연 (선홍2리)	2007. 10
마당굿 영감놀이 제20회전국민족극 한마당참가 (경북 성주)	2007. 8
마당굿 세경놀이 순회공연 (낙천, 가시, 대평, 평대, 와산, 신촌)	2007. 6~7
굿놀이 세경놀이 초청공연 (관덕정마당)	2007. 2
굿놀이 세경놀이 한일해협연안주민친선이벤트 (일본 야마구치현)	2006. 12
마당극 전상놀이 목포우수마당극대전 (목포)	2006. 8. 11
마당굿 세경놀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순회공연 (제주도일대)	2006. 7
마당굿 세경놀이 초청공연 (경북 성주군)	2005. 9, 10
제주굿놀이 세경놀이 순회공연 (신평리, 덕수리, 오일장장터)	2005. 8, 10, 12
마당극 전상놀이 순회공연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2005. 4. 12
하늘나라꽃밭지기 제주지역초등학교 순회,초청공연 (가파교,중문교,종달교,신례교,곽금교, 수산교, 영지학교)	2004. 11(순회) 12 (초청)
마당굿 세경놀이 순회공연 (원주, 서귀포시, 제주도문예회관 국립제주박물관, 학생문화원대극장 월드컵경기장)	2004. 7, 9, 10, 12
하늘나라꽃밭지기 순회, 초청공연 (제주지역초등학교,유수암리)	2003. 5, 6, 10
하늘나라꽃밭지기 순회공연	2002. 4, 12

	(복지시설, 문화의집, 초등학교) 제주굿놀이 세경놀이 우수마당극제전 (목포)	2002. 8
	하늘나라꽃밭지기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 (제주문예회관소극장 및 도내일원)	2001. 9~11
	제주굿놀이 세경놀이 제14회 전국민족극한마당 (경북 성주, 제주문예회관)	2001. 8. 10
	제주굿놀이 세경놀이 한라문화제 초청공연 (왕벚꽃큰잔치, 한라문화제)	1998. 4. 10
	제주굿놀이 세경놀이 서귀포시문화원초청공연 (서귀포문화원)	1997. 11
민요패 소리왓	왕이야 자랑아-삼승할망 꽃놀래 제8회 정기공연 (제주한라체육관)	2002. 12
	소리판굿 용시풀이-세경본풀이 순회공연(서귀,대정,화순, 은평, 세화, 표선, 제주시)	2004. 8-9
	소리판굿 용시풀이-세경본풀이 제9회 정기공연	2004. 12
	소리판굿 농사의 신 자청비 제11회 정기공연	2006. 11
	농사의 신 즈청비 제12회 정기공연 소리판굿	2006. 10
	삼승할망과 함께하는 신화여행, 민요여행 사회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07. 7
	삼승할망과함께하는 제주전래놀이 국악연수지도(제주관광대유아교육과)	2007. 9
	소리판굿 녹디생이영 혼디 똑딱똑딱 집짓어보게 제13회 정기공연	2008. 11
	농사의여신 자청비와 떠나는 신명나는 소리여행	2009. 4-11
	삼승할망이영 혼디 던데던데 놀아보게 아트리치 지원사업	2009. 7-10
	바람질구름질로 드는 영등할망바당절소리 제14회 정기공연	2009. 11
	장터에서 열리는 신들의 퍼레이드 거리신화축제	2010. 12
	소리판굿 펠롱펠롱 펠롱도채비 제16회 정기공연	2010. 11
	소리판굿 운명을 아는 아이, 오늘이	2012. 11

	2012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제17회정기공연 오늘이와 함께 신비의 원천강을 찾아서 교육사업	2013. 3-11
	쑹쑹쑹 애기구덕 탕 꿈꾸는 생명꽃 여행! 교육사업	2013. 3-11
	쑹쑹쑹 천만송이 꿈을 키우는 삼승할망 꽃놀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2014. 6-8
	창작소리굿 바람질 구름질로 드는 영등할망 바당절소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14. 12

공연단체의 특성상 ‘굿’의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 ‘놀이패 한라산’과 ‘민요패 소리왓’이 본풀이를 활용한 공연을 가장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극단 ‘가람’과 ‘이어도’에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본풀이를 활용한 공연을 한 적이 없었다. 극단 ‘세이레’가 2012년 일반본풀이인 세경본풀이 자청비를 무대에 올린 것을 시발점으로 2014년에 당신본풀이인 백주또를 공연하였다.

이처럼 도내외에서 제주의 본풀이를 활용해 대규모 공연장부터 작은 소극장 무대나 마당판 까지 활발하게 공연되기 시작하면서 ‘본풀이’의 신들이 일반 대중들의 귀에 익숙해지고 입으로 회자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텍스트콘텐츠와 공연·전시콘텐츠를 넘나들며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횡수와 공연규모에서는 미비하나 소극장과 마당판에서 다른 본풀이를 활용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수의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으로 형상화 된 당신본풀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시, 공연 콘텐츠는 ‘세경본풀이’나 ‘원천강본풀이’ 등 몇몇 일반본풀이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청각·디지털콘텐츠

채록되어 문헌 속에 잠자고 있던 본풀이 속 신들이 공연·전시물을 통해 예술적으로 창작되고 다듬어져 대중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을 찾는 이른바 문화예술과 친숙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현대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영상과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시청각·디지털콘텐츠이다.

아직 본풀이의 신들이 영화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디지털 게임의 주인공이 된 사례가 있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으로는 JIBS의 뮤지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서천꽃밭’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본풀이 속 ‘서천꽃밭’을 소재로 하였고 삼승할망과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 그리고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방영되었다. 2013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작품은 뮤지컬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TV프로그램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애니메이션도 있다. 전승일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하늘나무>는 “자청비 신화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작품이다. 자청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며 몸을 날리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반전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송태현, 148). 이성강 감독이 제작한 단편 <오늘이>는 가장 주목받은 작품으로 제주도신화 ‘원천강본풀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인데 2004년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스트메신저>는 국산애니메이션으로 DVD로 발매가 되었고 극장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게임으로도 인기가 높다. 주인공이 ‘차사본풀이’의 강림도령이고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이다. ‘원천강본풀이’를 차용해 강이 나오고 이 원천강을 지키는 수호자 이름이 원천강이다. 본풀이의 신들이 디지털기술과 만나 SF콘텐츠로 태어난 예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애니메이션은 ‘와룡탕 퀘네깃또’이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공동개발팀이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주)제주넷과 (주)넥스트이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콘텐츠로 주인공 퀘네깃또가 제주의 많은 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중한 조리법을 얻어 신의 요리를 만들어간다는 스토리다.¹⁶⁾

퀘네깃또는 본고에서 다름 여신 백주또의 아들이고, 아버지 소천국에 의해 무쇠석함에 버려졌다가 나중에 돌아와 신이 되었다. ‘김녕퀘네깃또’신화의 주인공 퀘네깃또는 신화 속에서도 ‘소를 전 마리 먹고 돼지도 잡아먹는’ 신이고 지금도 돼지 전 마리를 잡아 제를 지내는 퀘네깃또의 당신(堂神)이다. 당신본풀이의 주

16) 2008, 8, 13 연합뉴스 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080813151113681>

인공이 애니메이션과 모바일게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모티브를 가져왔다. 당본풀이 속에서 궤네기또는 엄청난 식성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나 강남 천자국의 난리를 해결하고 돌아와 김녕당에 좌정한다. 이 신화의 모티브가 현대적인 모바일게임에 그대로 차용되었다는 사실은 제주의 본풀이, 그것도 일반본풀이가 아닌 당신본풀이의 내용이 현대적인 디지털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의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문화콘텐츠로 제작하여 신화를 전승하고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대상은 거의 ‘세경본풀이’나 ‘원천강본풀이’ 등 소수의 본풀이에 편중 되어 있다.

2. 본풀이와 연극

1) 굿과 연극의 상관성

무당이 굿판에서 벌이는 굿은 제의적이며 동시에 연희적이다. 서연호는 “자연과 인간의 갈등, 삶의 불가사의, 불가해한 문제들을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무(巫)의 제의를 ‘굿거리’라 하고 굿거리 가운데 특히 연극성이 짙은 거리를 ‘굿놀이’”(서연호, 1977, 107-108 참조)라고 불렀다. 굿놀이는 굿에 삽입된 연극이고 굿을 이끌어 가는 무당 즉, 샤먼을 “굿의 배우”(서연호, 2011, 69)라고 했다. 성공적인 연극을 위해서 배우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굿판에서는 무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인간이 되어 구경꾼을 울고 웃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굿은 한 편의 훌륭한 드라마에 상응”한다고 하였다(서연호, 2011, 77). 연극에서 주연과 조연이 있고 관객이 있는 것처럼 굿판에는 한 명의 무당만 서는 것이 아니다.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무당, 즉 소무(小巫)가 있고 약사들이 있으며 지켜보는 관객이 있다.

굿판에서 무당이 벌이는 여러 연희 형태를 현대 연극의 여러 장르에 빗대어 설명하는 학자들의 연구도 있다. 먼저, 서연호는 무당이 신을 강림하게 하고자 하는 연행을 “모노드라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옆에 있는 “소무(小巫)들이

나 악사들과 이야기나 노래를 주고받는 연행은 대사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연호, 2011, 72).

굿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연극과의 상관성을 찾는 연구도 있다.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뉘굿¹⁷⁾의 경우 무당은 사자(死者)로 변하여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한다. 사자가 진짜 존재한다는 믿음은 사이코드라마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들어 굿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극으로 보기도 한다(다니엘 키스터, 131-141참조). 이 때 가족들과 관객은 사자로 분(扮)한 무당을 보며 현실에서 쌓인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인간을 접신(接神)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 굿의 목적이라고 보고 이를 앙토넵 아르토(Antonin Artaud)의 잔혹극의 목적과 연결하여 고찰하기도 하였다. 신현숙에 의하면 잔혹극이 “문명에 의해 병든 인간의 의식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배우는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불가사의 것, 초자연적인 힘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들림’에서 ‘마귀 쫓음’의 위험한 영역으로 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혹극의 배우는 굿판의 무당이 무병을 앓거나(강신무의 경우) 훈련을 통해 접신하는 것처럼(세습무의 경우) “호흡 훈련, 몸짓의 계발, 시적 황홀경이라는 의도적인 훈련에 의해 신성에 도달”해서 “집단적 전염 상태를 만들고 집단적 치유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신현숙, 404-407).

이러한 주장이 서구의 연극 장르와 이론에 우리 굿의 연극적 특징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굿과 서구 문학이론과의 비교 연구의 의미는 우리 굿이 동서를 막론한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굿이 갖는 연극성과 보편적인 극의 특징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작업이다(이연주, 2006, 4-10 참조).

이처럼 무당이 굿판에서 벌이는 제의적인 면과 연희적인 면은 연극과 긴밀한 상관이 있으며 1980년대부터 굿놀이를 연극으로 만드는 “현대의 굿극”실험이 전개되었다. 그 예로 국립극단의 <바리데기>¹⁸⁾, 극단 목화의 <백마강 달밤

17)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의 저승천도를 비는 굿을 통칭하여 말한다. 사령(死靈)굿, 진혼(鎮魂)굿이라고도 한다. (문화원형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에>19), 연희단 거리패의 <오구>20), <초혼>21), <씻금>22)이 있다. 이들 작품은 “샤먼의 굿놀이가 현대 드라마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연호, 2006, 39-45 참조).

2) 본풀이와 연극의 상관성

제주의 굿판에서 심방의 입에서 불리는 신들의 내력담 본풀이는 심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관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의 굿과 본풀이가 가진 연극성에 관한 연구는 문무병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본풀이를 “굿의 대본”(문무병, 2003, 머리말)이라고 했다. 문헌으로 옮겨지기 훨씬 전부터 제주 굿판의 샤먼인 심방들은 본풀이 내용을 대본처럼 외우고 때로는 옆에 있는 소미(小巫)나 악사들을 조연으로 출연시키고 단골들 앞에서 연희를 해 왔다. 심방은 접신(接神)을 하는 영험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야기꾼으로 춤꾼으로 수시로 변하여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굿의 배우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굿판은 무대이고 굿을 구경하는 단골들은 관객이다. 그러나 단골인 관객들도 구경만 하지 않는다.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인정(人情)을 걸기도 하고, 심방의 질문에 대답하며 극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무대는 굿판으로 한정되지 않고 동네 어귀로 옮겨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심방에 따라 그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바뀌고 연행이 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이되어 생생한 현장극으로서 해학성을 발현한다.

문무병은 제주 굿판에서 벌어지는 연극을 제주의 ‘민속극’이라 칭하고 종이탈 굿놀이본과 심방굿놀이본으로 나누어 그 대본을 채록하고 기존의 채록본을 정리하였는데, 관덕정에서 열린 ‘탐라입춘굿놀이’에서 연행되기도 했고, 심방의 자택에서 연행되기도 했다(문무병, 2003). 이들 민속극에서는 심방이나 소미가 본풀이 전후에 종이탈을 쓰고 가면극을 펼치기도 하고 심방이나 소미가 현장에서 분장한 후 소품을 활용하여 연행을 펼치기도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18) 김진희 작, 손진책 연출, 1983, 3
19) 오태석 작, 오태석 연출, 1993, 2
20) 이윤택 작, 이윤택 연출, 1990, 6
21) 장일홍 작, 이윤택 연출, 2013, 12
22) 이윤택 작, 이윤택 연출, 2011, 4

같다.

<표 4> 본풀이 전후에 삽입되는 연극 형태의 굿놀이

종이탈굿놀이		심방굿놀이	
굿놀이명	연극형태	굿놀이명	연극형태
입춘탈굿놀이	입춘에 목관아지에서 나무소(낭쇄)물이를 한 후 들하르방춤과 오방각시춤을 추고 세경놀이를 보여줌	세경놀이 ²³⁾	소미(小巫)가 각시로 분장하여 사생아를 낳고 농사를 가르치며 심방과 대화를 나눔
서천꽃놀이	어린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구삼승 할망(종이탈분장)을 쫓아냄	산신놀이	두 포수가 총을 들고 사냥을 한 후 심방의 주선으로 분육(分肉) 함
전상놀이	삼공본풀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굿놀이. 거지부부가 종이탈을 쓰고 딸(가쁜장아기)를 찾아감	용놀이 (갈룡놀이)	심방이 ‘친구아구대맹이’라는 큰 뱀을 술 먹여 잡은 후 뱀장사놀이를 함
영감놀이	종이탈을 쓴 도깨비들을 대접하고 배를 태워보내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이야기	강태공 서목시놀이	심방과 소미가 도끼로 찍는 시늉을 하고 대나무로 집을 지음
		허맹이놀림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뱀 죽인 허맹이라 부르며 응징하고 죽은 뱀을 환생시킴
		아기놀림	심방이 아기인형을 업고 아기를 키우는 과정을 보여 줌

거친 자연 환경 아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았던 제주 사람들은 신에게 운명을 맡겼고 또한 신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심방의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굿판을 연희의 마당으로 삼아 삶과 죽음을 사유하고 인간관계의 희노애락을 공감했다. 그 현장에서 도덕을 배우고 규범을 익혔다. 또한 굿은 변변한 공연물이 없던 그 시절의 공연문화콘텐츠였다. 문무병에 의하면 “굿은 공동체의 신앙이며, 민중집단의 규범이며, 제주의 문화를 역사화 한 제주의 전통극”이고 본풀이는 이 전통극의 “대본”인 것이다(문무병, 2003, 머리말).

이렇게 해학과 풍자와 미학적 가치가 높은 대본과 선행 공연물이 있었음에도 오늘 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몇 몇 본풀이에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놀이굿 중 ‘세경놀이’나 ‘전상놀이’, ‘서천꽃밭놀이’, ‘영감놀이’는 그나마 놀이패 한라산이나 소리패 ‘소리왓’에서 공연단의 특색에 맞게 각색되어 올려진 바 있다. 영감놀이는 해마다 목관아지에서 열리는 ‘입춘굿놀이’ 전야제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서도 연행된다. 특히 칠머리당영등굿은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해마다 칠머리당에서 연행되고 있으나²⁴⁾ 다른 면에서 보면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나머지 산신놀이나 용놀이, 허맹이놀림, 아기놀림 등의 놀이굿은 당신본풀이와 연관된 놀이굿²⁵⁾으로 당(堂)이 아닌 무대에서 공연물로 스토리텔링 되어 올려진 사례가 없다.

여러 굿놀이들이 연극의 형태이고 보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 스토리텔링하여 무대에 올려져야 한다. 굿은 원형문화재로서 보존되어야 마땅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골이 되어 당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이 본풀이

23) 여기서 세경놀이는 자청비가 등장하는 세경본풀이와는 전혀 서사가 다르다. 소무(小巫)가 옷 속에 병을 집어 넣어 입산부로 분장하고 아기를 낳아 ‘팽돌이’라 이름 짓고 그 팽돌이에게 농사를 짓는 전 과정을 가르치며 보여주는 극이다. 자청비가 오곡의 씨앗을 뿌리는 ‘풍요’로운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면을 보여준다. 밭에 씨를 뿌리고 가는 것을 인간이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는 빗대어 이야기 하고 있다. 성적인 부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집살이의 한이 나타나기도 한다.

24) 문무병은 영감놀이를 “제주도의 굿놀이 중 가장 해학적이고 연극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서 영감은 도깨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두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환자가 있거나 어부나 해녀가 아플 때 치르는 영감놀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영등송별식 때 ‘요왕맛이’가 끝나고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진다. (문무병, 2003, 63참조)

25) 산신놀이는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중산간 마을의 당에서 주로 하는 놀이굿이고 용놀이, 허맹이놀림, 아기놀림등은 뱀신앙과 관련이 있는 토산 일렛당, 여드렛당과 관련한 놀이굿이다. 위의 표에 있는 강태공서복시놀이는 새 집을 짓고 성주풀이를 하는 과정에 삽입되는 놀이굿이다.

를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특히 본풀이를 대본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의 연극 스토리텔링이 시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제주의 신화 본풀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3.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스토리텔링과 공동창작

1) 본풀이 극본의 유형

굿이 진행되는 굿판과 연극의 무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상일은 굿을 다소 연극성을 가진 전통유산이기는 하지만 “굿은 지난 생활문화의 잔존일 뿐 연극예술이 아니”(이상일, 62)라는 것이다. 또 이대훈은 연극의 관객이 굿판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배우들과는 이질적인 집단”(이대훈, 75-77참조)이라고 지적했다. 굿판의 원형을 연극 무대에서 복원하거나 전승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굿판에서 심방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본풀이는 소중한 ‘신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본풀이를 대본으로 활용하여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는 연극으로 올려 졌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풀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도내 외 공연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들 작품들이 활용한 본풀이의 범위는 넓지 않고 그 형식도 한정적이다. 본풀이와 연극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등 여러 본풀이 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연극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의 본풀이를 활용한 다양한 극본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그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창작방법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백성과는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는데 제 1유형은 국내(외) 신화 원작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성한 시나리오, 제 2유형은 국내(외)신화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재구성한 시나리오, 제 3유형은 2가지 신화를 합성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시나리오, 제4유형은 신화적 모티브와 상징성만을 차용하여 작가가 새롭게 시나리오로 분류하였다 (백성과, 2004,

47). 서동원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 1유형을 ‘신화 재현형’, 제 2유형을 ‘신화 재구성형’, 제 3유형을 ‘신화 합성형’, 제 4유형을 ‘신화기반 창작형’이라 명명하였다(서동원, 33-36 참조).

<표 5> 본풀이 극본의 유형 분류

- * 제 1유형 - 본풀이 원작의 일반적 해석 - 재구성 - 극본화
- * 제 2유형 - 본풀이의 새로운 해석 - 재구성- 극본화
- * 제 3유형 - 2가지 이상의 본풀이 합성 - 새롭게 재구성 - 극본화
- * 제 4유형 - 본풀이의 모티브나 상징성만 차용 - 작가의 창작 - 극본화

제 1유형의 경우는 본풀이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극본이라 하겠다. 이는 심방의 입에서 전해지던 본풀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되 서사를 그대로 살리는 극이다. 2012년 제7회 고나마루향토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정민자 극본 극단 세이레의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를 예로 들 수 있다. 극작가는 극의 재미와 완성도를 위해 재구성을 시도하면서도 세경본풀이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남장을 한 자청비가 문도령과 사랑을 나누고 연인을 찾아 하늘까지 올라가 오곡의 씨앗을 뿌리는 농사의 여신으로 좌정하기까지 일반적인 본풀이의 해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 2유형의 경우는 본풀이 서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그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2006 목포우수마당극대전 공식초청작인 놀이패 한라산의 <전상놀이>는 삼공본풀이의 서사를 새롭게 해석한 마당극이다. 이 극의 등장인물은 심방과 가쁜장아기, 은장아기, 늦장아기, 거지 부부 등 삼공본풀이의 등장인물과 동일하다. 그러나 작가는 전쟁의 업보(業報)를 뜻하는 ‘전상’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굶은 전상을 옹지 못한 행동이나 마음을 일컬으면서 “보수, 수구, 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좋은 전상은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 변화발전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밝혔다(김경훈, 2014, 95). 이는 신화의 서사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작

가의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제 2 유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제 3 유형의 경우는 하나의 본풀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본풀이가 합성되어 새롭게 재구성되는 경우이다. 실제 본풀이를 활용한 공연된 사례 중에 이런 유형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만약 이 유형의 극본이 나온다면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한 연극에 등장할 수 있다. 미국 출신의 극작가 메리 짐머맨(Mary Zimmerman)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연극 <변신이야기>²⁶⁾가 그 예이다. 마이다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에로스 and 프시케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10개의 신화를 합성하여 현재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극이 탄생한 것처럼 제주 본풀이의 여러 이야기가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스토리의 연극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

제 4 유형의 경우는 작품의 소재나 모티브만을 차용하여 전혀 새로운 대본을 창작하는 경우이다. 2004년에 제작된 소리와의 <용시풀이>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신화 속 주인공만 등장할 뿐 내용은 본풀이와는 전혀 다른 현대극이다. 이 극은 힘들게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도내 농촌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었다. 2012년에 초연되어 2015년에 다시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내 이름은 강>도 이 유형의 극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현대극이다. 다만 원천강과 주인공 이름만을 차용한 것이다. 신화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대본이지만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직까지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연극 스토리텔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의 많은 본풀이가 연극의 원천소스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극이 무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2) 본풀이를 활용한 ‘공동창작 연극’의 필요성

찰스 리드비터는 신화가 “어느 한 저술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저술가들이 끊임없이 가공해 온 공동창조물이며, 매우 협업적이고 집단적인 창조과정의 결과”(찰스 리드비터, 102)라고 하였다. 신화인 본풀이 역시 한 개인이 만들어서

26) 이 연극은 변정주 연출로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http://newsculture.heraldcorp.com/sub_read.html?uid=46704 기사 참조

전승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심방들의 입을 거쳐 단골들과 함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오늘에까지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풀이는 집단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 극본의 경우 공동창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모든 유형의 극본이 공동창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연극의 대본인 희곡은 문학 장르의 하나지만 실제로 무대에서의 공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출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풀이를 활용한 연극 대본은 신화전문가와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떤 유형의 극본을 쓰더라도 본풀이 원형이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하지만 원형의 비중이 큰 제 1유형과 2 유형의 경우는 공동창작의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여러 본풀이를 합성하는 제 3유형이나 모티브만 차용하는 제 4유형의 경우는 작가의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경우는 여러 명의 공동창작보다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창작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본풀이의 서사를 관객에게 전달할 목적의 제 1유형의 경우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본풀이의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는 제 2유형의 경우는 신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연극이 본풀이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방들의 입에서 전승되어 오던 본풀이가 채록되어 문헌으로 정리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본풀이의 내용은 대중들에게 생소하다. 이 경우 연극이나 공연물이 본풀이를 전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한국의 대표적인 여신이 된 것은 많은 콘텐츠에서 세경본풀이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청비의 서사가 대중화 된 지금 다양한 시선의 자청비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악역을 맡은 정수남이의 시선으로 극이 전개될 수도 있고 자청비의 사랑 방식을 비판하는 극이 나올 수도 있다.

하나의 본풀이가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자청비를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은 본풀이의 고장인 제주 도민들에게도 생소하다.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나 문전본풀이의 주인공 여산부인, 악신인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이야기를 아는 도민들은 많지 않다. 당신본풀이의 원조인 백주또를 비롯한 많은 신들의 이름은 더더욱 생소하다. 그만큼 많은 문화콘텐츠가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분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연극을 제작한다면 그 유형은 제 1유형이나, 제 2유형으로 제작된 극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분풀이 원형을 전승하는 문화콘텐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분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연극 대본은 구비문학을 계승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구비문학은 공동작의 문학”(장성철, 351)이다. 오랜 세월 구비전승 되어 온 분풀이는 연극을 관람한 관객들에 의해서 다시 구비전승 될 것이다. 따라서 극작가가 신화전문가와 연출가와의 공동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본, 공연현장에서 관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극은 협업적이고 집단적인 창조과정을 통해 전승된다는 신화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는 작업이 된다.

Ⅲ. 송당본풀이 여신 백주또의 스토리텔링

1. 당신본풀이와 스토리텔링

1) 당신본풀이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이승과 저승이 갈리며,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을 관장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들의 내력담을 풀어낸 것이 일반본풀이라고 한다면 당신본풀이는 마을에 좌정한 당신들의 내력담이다. “어떻게 하여 당신이 마을을 설촌하였고 마을의 토주관이 되어 당에 좌정하게 되었는지, 왜 제일(祭日)을 정해 당신을 모시게 되었는지를 풀어내는 신화를 가리킨다”(문무병, 2008, 28).

과거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 당이 하나 이상씩 있었다. 그러나 모든 당신마다 서사구조를 갖춘 신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신의 계보를 설명하거나, 신의 이름과 직능을 간단히 나열한 후 소원을 들어달라는 비넴으로 이어진다. 반면 서사구조를 제대로 갖춘 당신본풀이도 상당하다. 일반본풀이와는 다른 서사구조를 가진 독특한 본풀이가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현용준은 설화구조를 이룬 당신본풀이를 설화형(說話形)본풀이라 명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일람하였다.(현용준, 1992, 22-27참조)

<표 6 > 당신본풀이 일람

본풀이	神明	당 소재지
내왓당본풀이	천조또, 정절상군농	제주시 용담리
칠머리당본풀이	도원수 감찰지방관	제주시 건입리
세미당본풀이	소천국 열두째 아들	제주시 회천리
노능당본풀이	소천국 열한째 하들	조천면 와흘리

괴평동당본풀이	소천국 열째 아들	조천면 와흘리
드리본향본풀이	소천국 아홉째 아들	조천면 교래리
송당본풀이	금백주, 소천국	구좌면 송당리
케내깃당본풀이	케내깃도한집	구좌면 김녕리
각시당본풀이	옥황상제말жат딸아기	제주시 이도리
세화본향당본풀이	백죽도, 금상님	구좌읍 세화리
서귀본향본풀이	벼르못도, 고산국, 지산국	서귀읍 서귀리, 동흥리
칠성당본풀이	관청할망	서귀읍 서귀리
토산일뤼당본풀이	토산일뤼한집	표선면 토산리
토산여드렛당본풀이	토산여드레한집	표선면 토산리
호근이여드렛당본풀이	제산국하로산	안덕면 감산리
개당할망본풀이	개당할망	안덕면 사계리
하원당본풀이	최진국 아들	한림읍 동명리
상창하르방당본풀이	남판돌판고나무상대자하로산	안덕면 상창리
감산창천일뤼당본풀이	일뤼증조	안덕면 감산리
색달리본향본풀이	색달리동백자하로산	중문면 색달리
드람지케본풀이	중문이하로산	중문면 중문리
하천본향본풀이	육섯도항거님	표선면 하천리
향덕본향본풀이	알가름서물한집	조천면 함덕리
와산불뚝당본풀이	옥황상제말жат딸아기	조천면 와산리

*표 인용(현용준, 1992, 22-23)

위의 표 두 번 째에 있는 칠머리당본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칠머리당굿’²⁷⁾이다. 제주시 건입동의 속칭이 ‘칠머리’이다. 산과 가까운 마을은

27)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 열리는 이 곳은 바람의 여신인 영등할망을 환영하는 3개의 연희 ‘영등할망제’와 용왕맞이와 배방선을 하며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영등송별제’로 이루어진다.

산신에게 제를 지내고 농사를 짓는 마을은 농신, 바닷가 마을은 해신에게 제를 드리는 당신앙과 같이 건입동 주민들은 칠머리당에 모여 해마다 음력 2월에 당굿을 한다. 국내외에서 당신본풀이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이를 원천소스로 삼은 스토리텔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당신본풀이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탐라의 역사를 기록한 탐라순력도의 이형상 목사(1653 효종4 - 1733 영조9)는 당에 드나들며 당신을 받드는 제주의 문화를 음사(淫祀)라고 규정하여 신당과 절을 파괴하였지만 제주인들은 단골²⁸⁾이 되어 당을 찾았고 자신들의 삶과 죽음, 노동과 건강을 당신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산신에게 제를 지내고 농사를 짓는 마을에는 농경신, 바닷가 마을에는 해신에서 제를 지낸다. 각 마을의 생태에 맞는 신을 모시며 풍요와 안녕을 빌고 있는 것이다. 음력으로 7이 든 날짜에 찾는 일렛당, 8이 든 날짜에 찾는 여드렛당이 다르다. 아이를 못 낳으면 돼지고기를 제물로 준비해서 가는 당, 피부병에 걸리면 달걀을 준비해서 껍질 벗긴 달걀처럼 깨끗한 피부를 갖게 해 달라고 비는 당이 또한 다르다.

조동일은 일반본풀이는 본토에도 있지만 당본풀이는 제주도에만 있으며 전승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더욱 오랜 형태의 서사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본풀이가 일반본풀이보다 먼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조동일, 47-48 참조). 그렇다면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사람들이 직접 찾고 의지했던 당신들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마을마다 다른 생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풀이를 활용한 대부분의 문화콘텐츠는 앞서 제기했던 ‘일반본풀이’에 편중 되어 있다. ‘일만팔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리스로마신화처럼 신들의 계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퍼져 있는

28) 문무병에 의하면 마을 사람을 ‘단골’ 또는 ‘제민단골’, ‘만민단골’이라 하며 단골은 더 분화하여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라도 지역의 무당인 ‘당골’과는 다르다. 당신의 사제인 심방을 ‘당을 맨 심방’이라 했고 당맨심방의 후원자(patron)을 단골이라 했으며 이 단골들의 지원으로 당굿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문무병, 2008, 34-35 참조).

당신본풀이가 스토리텔링 되어야만 한다. 또한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 내는 단순한 서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신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본향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본능해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을 띠고 있음에 비해 일반본풀이는 인륜적이고 체제순응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양영수, 170).

계보가 있는 신화, 다양한 세계관이 드러나는 신화, 다양한 성격을 소유한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마다 있는 당신본풀이가 필요하다.

2. 당신의 원조, 백주또

1) 당신의 어머니

민속학자 현용준에 의하면 당신본풀이를 하는 심방들은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이기 열 여덟, 딸 아기 스물 여덟, 손지 방상 삼백 일흔 여덟”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다 (현용준, 2005, 157). 여기서 손당은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를 말하고 웃손당이니 셋손상이니 알손당이니 하는 것은 이 마을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가장 크고 윗자리에 위치하는 웃손당(上松堂)이자 송당본향당의 신인 금백주가 바로 백주또²⁹⁾이다.

백주또는 심방에 따라 다양하게 거명이 되는데 금백조, 백जू도, 백주또, 백조할망, 백조애기씨 등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이는 심방이 본풀이를 구연하는 과정에서 존칭을 달리하며 나오는 이명동인(異名同人)이다. 제주시 건입동 남무(男巫) 이달춘(李達春)이 구송한 본풀이를 보아도 백주또의 호칭이 뱃जू도마누라, 백जू도, 백주님 이렇게 바뀌고 있다.

“가온뎨도 소천국 알손당 고부니모를 솟아나시고, 강남 천조국 백몰래왓디서 솟아나신 백जू도마누라 인간 탄생해야 천기를 집떠보니 천상베필뉘 배위가 조선국 제주도 송당리 탄생해야 사는 듯하니, 백जू도가 제주 입도해야 훗아가서 소천국을 상멘해야 천상베필이 됐읍네다. 아들을 낳는디 우선 오 형제를 탄생하고 요숫채 아들

29) 심방들은 본풀이 속에서 ‘또, 님, 씨, 이’ 따위로 신령의 격단(格段)의 우열관계를 구분한다. (진성기, 1 『제주도무속논고』 1993, 한국민속연구회, p7 참조)

은 복중에 있는디 백주님이 말씀하시되” (현용준, 1992, 42)

본풀이는 구비 전승된 신화이므로 누구의 채록 본이냐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같은 심방에게서도 다른 존칭 어미가 붙고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백주또’³⁰⁾로 부르고 표기해도 무관하다고 본다

2) 송당본풀이의 서사와 여신 백주또

송당리본향당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는 여러 채록본이 있고 심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송이 되나,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비슷하다.

- ①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여신 백주또와 제주도 알송당에서 솟아난 산신(山神) 소천국은 부부가 된다.
- ②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산다.
- ③ 백주또는 남편에게 농사를 지어 많은 자식을 먹여 살리자고 권한다.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소천국은 백주또의 말을 듣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 ④ 소천국의 식성이 대단하여 백주또는 점심으로 밥 아홉동이, 국 아홉동이를 준비해 가는데 지나가던 중이 다 먹어 버린다.
- ⑤ 배가 고프는 소천국은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고도 배가 차지 않자 이웃집 암소까지 잡아먹는다.
- ⑥ 백주또는 농사짓는 자기 집 소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는 것은 소도둑놈이라며 하늘과 땅이 갈라서듯 살림을 분산하여 다른 삶을 산다.
- ⑦ 복중에 있던 아들이 태어나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백주또는 아버지인 소천국

30) 당신본풀이에서 백주또라는 이름은 두 군데의 본풀이에서 나온다. ‘송당본향당’의 여신 백주또와 ‘세화리당’의 여신 백주또이다. 세화리당의 백주또 신화는 처음 시작은 비슷하나 나중에는 다르게 전개된다. 송당리 백주또는 토착산신(土着山神)인 소천국과 결혼을 하나 세화리당의 백주또는 외래신(外來神) 금상님과 결혼을 하는데 이를 두고 문무병은 유배지의 특성이 반영된 후대의 신화소가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무병, 2008, 136 참조)

본고에서 일컫는 백주또는 송당본향당의 백주또이다. 송당본향당 백주또가 토착산신인 소천국과 결혼하여 18명의 아들, 28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자식들이 아이를 낳아 손자가 378명이라는 이야기다.

- 에게 아들을 데려다 준다. 아들이 아버지의 수업을 잡아당기는 등 무례하게 굴자 소천국은 아들을 무쇠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 ⑧ 무쇠석함이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국 막내딸과 혼인하나 식성이 하도 과하여 쫓겨난다.
- ⑨ 아들(퀘네기또)과 용왕국 막내딸은 강남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하고 제주도로 돌아와 김녕당에 좌정하고 아버지 소천국은 알손당(下松堂)에 좌정하고 어머니 백주또는 웃송당(上松堂)에 좌정한다.
- ⑩ 나머지 자식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

‘송당분향당본풀이’는 크게 백주또와 소천국이야기와 아들인 퀘네기또이야기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퀘네기또가 좌정한 ‘김녕분향당본풀이’와 대부분 일치한다. 김녕분향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에 퀘네기또의 식성과 관련한 뒷부분이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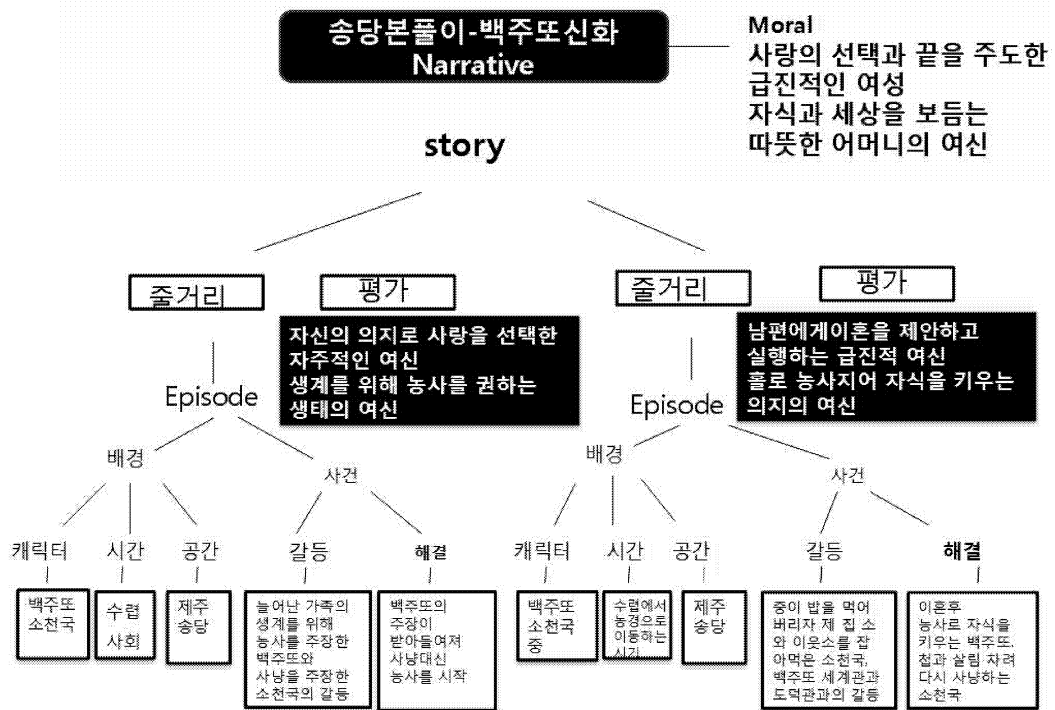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보면 송당본풀이 백주또신화는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이동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 반영된 신화라는 것이다. 이 시대적 배경이외에도 백주또의 자손들이 제주도의 400여개의 당신들로 좌정했다는 본풀이의 원형을 통해 그녀가 제주도 당신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주또가 농사를 권장하는 농경의 신이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남편을 향해 이혼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급진적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풀이 중 그 어떤 여신도 백주또처럼 단호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용감하고 기지 넘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문도령을 향해 맹목적인 사랑을 바쳤다. 문전본풀이 여신 여산부인 역시 악녀의 꾀임에 넘어가 모든 것을 탕진한 남편 남선비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이런 일반본풀이 여신들에 비해 당신본풀이 여신들은 남성들이 정해 놓은 금기를 깨기도 하고, 부도덕한 남성들의 사고방식에 타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양영수는 일반본풀이 여신들이 “인류도덕을 강조하는 외래사상과 통치이념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 비해” 당신본풀이 여신들은 “제주도의 척박한 물리적 환경 및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양영수,

173).

송당본풀이 ‘백주또’신화의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서사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러에 의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송당본풀이 서사 중 퀘네기또에 대한 이야기를 분리시켜 여신 백주또에 대한 ①~⑦까지 서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방식은 텍스트에 초구조³¹⁾ 개념을 도입한 반다이크 (Van Dijk)의 서사구조 그림(Narrative Structure)을 따른 것이다.

<그림 1 > 백주또 신화 서사구조 분석



반다이크에 의하면 “일련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텍스트의 줄거리 Plot”(반다이크, 1995, 226)이라고 부르는데 퀘네기또 이야기를 뺀 백주또 이야기의 경우 두 개의

31) 반다이크에 의하면 “초구조(Superstructure)는 텍스트의 유형을 표시해 주는 총괄적 구조이다... 초구조는 텍스트를 보고 그 밖의 또 다른 총괄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텍스트 각 부분의 총괄적인 배열도 규정해 준다... 초구조는 텍스트가 적용되는 일종의 도식 Schema 이다” (반다이크, 207-209참조).

플롯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각 에피소드에는 배경과 사건이 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반드시 갈등³²⁾과 해결이 있게 된다. 첫 번째 플롯에는 삶의 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이다. 백주또가 소천국과 결혼한 후 늘어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사를 주장하는데 이 때 사냥을 주장하는 소천국과의 갈등을 빚었고 결국 백주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농사를 짓게 된다. 두 번째 플롯은 세계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과 파국이다. 중이 점심밥을 다 먹어버리자 배가 고프 대식가 소천국이 농사짓는 제 집 소도 모자라 이웃집 소까지 잡아먹어버린다. 이 세계관과 도덕관을 용서할 수 없는 백주또가 이혼을 선언하여 제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 즉 스토리텔러는 “대부분 사건뿐만 아니라, 심적 반응이나 의견, 평가 등을 더 자주 표현한다. 이러한 범주들을 보통 ‘평가 Evaluation’라 부른다(반다이크, 226). 사실 이 평가에 따라 같은 텍스트를 스토리텔링 하더라도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플롯에서 우리는 백주또를 자신의 의지로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한 자주적인 여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선택한 생태의 여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농사를 선택했다면 ‘생태의 여신’이라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소천국의 수렵을 살육과 파괴로 보고 백주또의 농사를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따르는 행위로 보면 ‘생태의 여신’로 평가하는 타당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플롯에서 백주또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급진적인 여신이자 홀로 농사지어 아이들을 키우는 의지의 여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주또가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이유는 세계관과 도덕관의 차이 때문이었다. 소천국이 잡아먹은 소는 농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농사를 부정하고 살육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집 소도 모자라 남의 집 소를 잡아먹는 행위를 보고 ‘소도독놈’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도덕관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땅 가르고 물 가르듯 갈라서자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세계관을 가진 비타협적인 여신이라는 평가로부터 백주또 스토리텔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변별력을 가진 스토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서사구조분석에 따르면 텍스트가 가진 화용(話用)적인 측면에

32) 반다이크의 텍스트학을 번역한 정시호는 이 갈등을 ‘업힘’이라고 해석했다.

서 우화에서처럼 실제적인 결론으로 교훈이나 모럴(Moral)이 도출되는데 “이야기의 사건이 실제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반다이크, 226)이다. 각 플롯의 평가를 종합해 전체 서사가 수용자에게 주는 모럴은 곧 스토리텔링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럴은 우화의 권선징악 교훈처럼 단순할 필요는 없다. 여신 백주또를 지금 만난다면 백주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여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려보았을 때 백주또의 모럴은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한 급진적인 여성, 자식과 세상을 보듬는 어머니의 여신이다.

3) 자청비와 백주또 - 백주또신화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 제주신화 ‘본풀이’를 문화원형으로 삼아 제작한 문화콘텐츠 중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신은 바로 자청비다. 제주신화 ‘본풀이’ 속의 자청비가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사랑을 찾아가는 일련의 드라마틱한 내용과 농경의 신이 되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대단원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합한 서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청비에게 없는 면을 백주또가 가지고 있다. 백주또는 자청비 못지않게 매력적인 여신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백주또의 변별력을 부각시키는 스토리텔링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백주또는 자청비에 비해 훨씬 급진적인 여신이다. 현용준은 자청비를 “영웅적인 기지와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구사회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여성”(현용준, 2005, 126)이라고 평가했다. 자청비의 연인 문도령은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기 위해 하늘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의 배신자인데도 별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그 모습은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사회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백주또는 자신이 사랑을 찾아 제주에 들어와 배필을 찾는 적극적인 여성이면서 남편 소천국의 무책임과 부도덕함을 정확히 질타하고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배우자와 과감하게 갈라설 것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어느 여신에게도 찾아 볼 수 없는 백주또만의 변별력이다. 백주또의 단호함과 급진적인 성격은 자청비와는 전혀 다른 여신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신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마음에 든 남자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남장(男裝)까지 해가며 만남을 성사시키고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하늘나라에 찾아가는 자청비의 적극적인 모습은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아래서 볼 수 없는 여인상이다. 조동일은 자청비 신화의 세경본풀이가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조동일, 48)이라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평가도 자청비의 영웅적인 활약담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사실 본풀이에서 백주또가 강남 천자국에서 자신의 배필이 제주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는 자청비와 비교했을 때 짧고 단순하다. 그러나 자청비의 사랑은 문도령이 내려와 성사된 것이고, 백주또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사랑을 찾아가 성사시켰다.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도 백주또가 자청비보다 훨씬 능동적이다.

또한 백주또는 여신이자 어머니이다.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나누었으나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결혼을 한 후 아들 열 여덟, 딸 스물 여덟을 낳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저 농사를 제의하는 어머니, 남편과 갈라서고도 혼자 농사를 지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청비나 가문장아기³³⁾에는 없는 신화소로 이를 부각시켜 모성(母性)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여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이다.

33) 삼공본풀이에 나온 여신으로 거지 부부의 셋째 딸이다. 부모가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묻자 두 언니와는 다르게 여성을 상징하는 ‘배꼽 밑의 선그릇’덕에 산다고 대답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그 후 마를 파는 마통이와 결혼한 후 땅을 파는 곳마다 금이 나와 부자가 되는데 눈 먼 부모를 위한 거지잔치를 벌여 부모와 상봉한다. 마통이와의 혼인과정에서 특별하게 사랑의 장벽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발막아 누울’ 상대를 고르는 과정에서 첫째, 둘째 마통이가 거절하자 셋째 마통이가 이를 받아들여 가문장아기의 배우자가 된다.

IV. 제주 당신(堂神)본풀이 ‘백주또’신화를 활용한 공동창작연극 - <천년의 사랑 백주또>

1. 공동창작진의 구성에서 공연까지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극단세이레가 ‘2014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연극은 앞서 제기했듯 일반본풀이가 아닌 당신본풀이를 연극으로 스토리텔링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림 2> 공연포스터



제주 당신들의 어머니인 여신 백주또의 원형을 충실히 살리며 신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송당본풀이 여신 백주또가 연극무대에서 재현되는 첫 번째 시도이니 만큼 신화원형이 갖는 정신이 대사에서부터 미장센까지 발현되어야 한다.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들조차 제주의 여신하면 설문대할망이나 자청비 정도를 떠올리는 저급한 인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가 신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주신화 ‘본풀이’에 관심과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본풀이’와 상관성이 높은 문화콘텐츠인 연극 무대에서 신화 본래의 에스프리(esprit)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신화를 원천소스로 하여 콘텐츠제작에 접근할 경우 원형이 가진 미학적 에스프리를 충분히 살려야 하며”(김영옥, 57)³⁴⁾ 이것이 다양한 창작 주체들의 노력으로 OSMU의 가능성을 열어 2차, 3차의 창작물로 개발될 때 상상력과 변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물이 개발될 것이다.

기획자는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대본 공동집필을 기획했다.

<표 7 > 극본 공동창작팀의 구성

이름	직업	공동창작참여목적
김정이	신화전문가	본풀이 원형을 제대로 살리고 신화의 본래 에스프리(esprit)구현하기 위해
김영란	작가 (시조시인)	대사의 문학적 완성도를 높여 감성을 자극하는 극본을 완성하기 위해
정민자	연출가	무대에서의 구현 가능 여부를 대본창작의 과정에서부터 고민하기 위해
이재숙	스토리텔러	원형의 서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극본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퀘네깃또가 무쇠석함에 실려 떠 내려가는 장면

34) 김영옥은 이 논문에서 서울시립무용단의 신화 콘텐츠 무용극<바리>의 실패 원인과 서울예술단의 신화컨텐츠 뮤지컬 <바람의 나라>의 성공 요인을 ‘신화적 원형’에 충실했는가에 두고 있다. (김영옥, 45-57 참조)

까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백주또가 아닌 퀘네깃또가 주인공인 ‘김녕당본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본의 전체적인 틀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현대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송당본풀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액자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본풀이 극본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작가의 새로운 해석이 들어간 ‘제 2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의 토론과 집필 그리고 수정을 거쳐 연습에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대본창작팀은 연습과정에 참여하여 극본의 창작의도를 배우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연이 상영되는 과정에도 창작팀은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사실 기획자에 의해 급하게 꾸러진 창작팀이고 연기자와 다른 팀과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의 극작가 카를 처칠에게 공동창작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에서부터 텍스트와 공연, 관객의 수용과 그 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극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연극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듯이”(김나영, 81) 제주신화 ‘송당본풀이- 백주또신화’를 텍스트에서부터 공연까지 토론을 통한 수정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의 연극’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연은 총 20회에 걸쳐 제주와 울산 4곳의 무대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천년의 사랑 백주또>공연 내역

일시	장소	횟수
2014. 10. 30~10. 3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회
2014. 11. 6~11. 16	세이레아트센터	15회
2014. 11. 23	울산북구 문화예술센터	1회
2015. 1. 17	제주컨벤션센터	2회

2. <백주또>의 원형과 재해석

문헌을 통해 ‘송당본향당본풀이’의 충분한 검토를 마친 창작팀은 백주또가 좌정한 본향당을 방문했다. 매년 치러지는 제의에 참여하여 심방의 입으로 ‘본풀이’를 채록한 경험이 있는 신화전문가 팀원의 안내로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를 찾았다. 마을 입구까지 신작로가 뻗어있고 굽주림에 허덕이지도 않으며 야수의 공격도 받지 않는 문명의 시대인데 왜 아직까지도 해마다 정월 열사홀이면 본향당을 찾는 마을 주민들이 있고 당을 찾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장소를 신성시 여기는가. 도대체 여신 백주또는 어떤 신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했다. 그것은 신화를 스토리텔링하는 창작자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의문이고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먼저 여신 백주또를 어떤 신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신화의 원형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신의 세계관과 철학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본창작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신화의 현재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송당본풀이-백주또 신화의 서사구조 분석에 의해 여신 백주또를 사랑의 선택과 끝을 주도한 급진적인 여성, 자식과 세상을 보듬는 따뜻한 어머니의 여신이라는 주제를 도출해 내었고 이를 통해 본풀이 원형을 수용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극본을 창작해 나갔다. 이제 도출된 주제가 극본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백주또,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하다.

송당본풀이 원형에서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모래밭에서 솟아나 스스로 자신의 배필감이 제주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 넘고 물 건너 제주 땅에 찾아왔다. 자신의 사랑을 직접 찾아 나섰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극본의 창작과정에서 백주또의 자주적인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토론이 이어진 후 극본에 구현되었다.

백주또 : 처음 본 순간 전 알았어요. 당신이 바로 제가 찾던 그 분이라는 걸요.

소천국 : 나도 그 날 피기 틀영 이녀 입에 놔 줄 때 알아서. 아! 이 비바리가
나 각시구나~! (백주또 입을 가리키며) 요 앵두 닮은 호끌락현 입을
아 벌리난 아, 이 몸에서 기냥 확 불이 부떠불대이. 거참³⁵⁾

대사는 백주또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외래의 여신이기 때문에 백주또의 대사는 표준어로, 소천국은 토착신이므로 제주어로 표현하였다. 이 대목에서 소천국의 대사가 좀더 길고 노골적이거나 백주또가 먼저 소천국을 배우자로 낙점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후 백주또와 소천국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삽입되는데 이 노랫말에서도 백주또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백주또의 노래 : 별 보며 달 보며 기다리지는 았았쥬. 사랑은 사랑은 찾아나서는 것

사랑을 끝내는 것도 여신 백주또가 주도했다. 농사 지을 소를 잡아 먹고, 이웃집 소까지 잡아먹은 현장에서 남편 소천국에게 백주또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백주또 : 당신은 사람이 아니우다. 자기 집 소도 모자라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는 당신이 사람이짜?

소천국 : 우리 거, 놈의 거가 어디 있나? 나 앞에 얼른거리는 짐승은 다 사냥감이라. 나 소천국이 사냥감을 놓치는 거 봤나?

백주또 : (절규하며 노래한다) 그놈의 사냥 사냥! 자기네 집 농사 짓는 소까지 잡아 먹는 게 사냥이우짜? 남의 집 소까지 훔쳐 먹는 게 사냥이라마썸? 귀한 양식 생산할 소를 한낱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당신, 끄떡허우다. 진절머리가 남수다. 당신은 소도독이우다. 소도독놈!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갈라사게마썸. 깨끗하게 갈라사게마썸!

이 부분에서 백주또가 제주어를 섞어 쓰는 것 역시 공동창작팀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백주또의 대사를 끝까지 표준어로 처리할 것인가, 중도에 제주어로 바꿀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볼 때 최소한 십 여 년이

35) 나도 그 날 고기 뜯어서 당신 입에 놔 줄 때 알아서. 아 이 처자가 내 각시구나. 요 앵두 닮은 조그만 입을 아 벌리니 아, 이 몸에서 그냥 불이 붙어버리더군. 거참.....

흘렀다고 본다면 제주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백주또의 적극적인 성향에 비추어 보건대 적극적으로 제주어를 구사할 것이다. 더구나 대단원에 제주 당신의 어머니로 좌정한만큼 제주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토론의 결과물이 반영된 것이다.

극본을 보면 백주또가 소천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하며 갈라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신 백주또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했다. 이 상황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급진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믿는 현대의 여성들도 프로포즈는 남성에게 받아야 하고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야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다시 카렌 암스트롱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통찰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화는 실패한 신화”이기에 사랑의 시작과 끝을 주도한 백주또 신화는 “유효한 신화”, “안내자 역할을 하는 ” 신화이다(카렌암스트롱, 12).

2) 백주또, 세상을 보듬은 어머니

공동창작팀은 백주또를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사랑한 여신이라고 규정했다. 백주또는 에코페미니스트였다. “인류를 비롯해 자연 속에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과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우주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마리아미사, 반다나시바, 16)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처럼 백주또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살육을 하는 사냥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것을 권했다. 농사는 자연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사는 방식이다. 물론 신화의 발생 배경이 수렵에서 농경생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라고 분석할 수 있으나 스토리텔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신화의 배경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천국 : 소나인 뽀센뽀센 골아도 사냥이 최고, 이 산 저 산 화북화북 놀아 땀기땀 활 썩 노루잡으민, 그 기분도 놀암직허주마는, 바둥바둥 허는 노루 야개기를 확 심영 숨통 그차 논 후제, 뜨근뜨근헌 피 팔락팔락 쏟아지는 거, 확 혼 사발 들으키민...카! 거뽀이나? 괴긴 틀어 떡곡 가죽으론 채찍도 멍글곡, 웃도 멍글곡... (백주또를 보며) 멋지지이? 남자는 힘이여, 힘!³⁶⁾

백주또 : 아! 그 그만 그만 험서. 말로만 들어도 너무 잔인하고 무섭수다. 그 죄를 어떻게 갚을지.. 서방님, 사냥은 정말 꼭 필요할 때 혼 두 번 허는 거우다. 사람들이 먹고 살젠허민 농서를 지서사주 마썸.

소천국에게 사냥이 아닌 농사를 권하는 원형의 서사를 그대로 살리나 극본에서는 이를 현대적 의미로 풀어내고 있다. 사냥을 하며 동물을 살육하고 고기와 피와 가죽을 얻어내는 인간의 잔인함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소천국이 말한 ‘남자는 힘이어 힘’에서 힘은 남자의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지의 생명을 짓밟아도 된다는 오만의 표현인 것이다. 대지를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파괴와 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 시대에 여신 백주또가 던지는 메시지이다.

<그림 3> 농사를 선택한 백주또



36)남자는 뭐라해도 사냥이 최고, 이 산 저 산 화려르러르 날아다니며 활을 쏘아 노루를 잡으면 그 기분도 날아갈듯하지만 바두바둥 거리는 노루 목을 확 잡아 숨통을 끊어놓은 후에 뜨끈뜨끈한 피 괄괄 쏟아지는 것을 확 한 사발 들이키면 카! 그것 뿐이나? 고기는 뜯어 먹고 가죽으로는 체찍 만들고, 옷도 만들고 멋지이지? 남자는 힘이어 힘!

위의 스틸컷은 남편 소천국과 갈라서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잔인하고 무서운 사냥이 아닌 농사를 선택하겠다는 백주또의 의지를 보여준다. 남편은 칩과 새살림을 차리고 다시 사냥을 하며 살지만 백주또는 홀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운다. 이 의지의 모습은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제주 여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력이 강한 여인들과 여신 백주또는 다르다. 백주또에게 자식을 키우는 것과 농사짓는 것은 단순히 그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는 세계관의 발현이다. 백주또의 이러한 세계관은 아래 백주또의 대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백주또 : (조팝을 널리 흩뿌린다.) 퀘네기또야...이 조팝이 어디서 낫겠냐? 하늘이영 땅이영 저 보름이영 문뜩 도와주난 아니가³⁷⁾ 고맙수다. 고맙수다. 고맙수다.(세 번 고시래를 한 후). 자 이제랑 우리도 먹게. 어멍 씹은 것 아무칭도 안 현다³⁸⁾.(자신의 입에서 씹은 후 아이에게 먹인다). 기여, 기여 아이고 잘 먹네 우리 퀘네기또... 어이고! 맛있어? (다시 먹인다.) 아이고 이제야 웃네.. 퀘네기또야 우리 살자. 살 수 있어. 자, 우리 퀘네기또 밥을 먹어시난 이디서 놀암시라이, 해 넘어갈 때꺼진 이 밭을 다 매야 가주. 아이구, 착하지, 내 새끼..... (퀘네기또 다시 아기를 구덕에 눕히고 일을 한다.)

그러나 백주또는 이렇게 보듬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다. 아들 퀘네기또가 아버지 소천국에게 무례하게 굴자 소천국은 무쇠석함에 담아 아들을 바다에 떠내버린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는 죄인이다. 바다에 잠기는 아들을 보며 구하지 못하는 어머니 백주또는 여신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모습 그대로다. 백주또가 마지막에 오열하며 치는 대사이다.

백주또 : 내 아덜, 퀘네기또야. 나 새끼. 니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느넬 위행 살았져³⁹⁾. 아니 죽어서도 널, 내 새끼들을 지킬 거여. 퀘네기또야 다시 살아나라. 꼭 살아나사 현다. 이승에서 못다 피민 저승에서 피어나고 다시 태어나도라. 난... 백년 천년이 흘러도 내 새끼, 느넬을 보듬고 지킬 거여.....

백주또는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무대에 설치된 신목(神木) 뒤로 사라진다. 그리

37) 이 조팝이 어디에서 어시서 나왔겠지? 하늘과 땅과 저 바람이 모두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않니?

38) 어미가 씹어 먹었던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39)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고 신화 속 이야기가 막이 내린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현실의 이야기다. 과연 신화와 연결된 현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도 공동창작팀의 중요한 고민거리였고 토론주제였다. 프롤로그에서 일반적인 고부갈등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성으로 연대한다. 자식을 보듬고 세상을 보듬는 위대한 존재인 어머니의 모습이야말로 백주또 여신이 무대에 현신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먼저 에필로그의 대사이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남편과 갈라설 것을 선언한 이명숙, 그러나 자식은 자신이 키우겠다는 대사는 백주또의 모습 그대로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시어머니 : 나 아덜 아까운 생각만 허민 되느냐? 느 하영 춤왔져, 난 아덜 하나 뵙 존디 명 살았주마는 나 추록 살랜 안 허켜. 걱정말라 지훈이어명야. 지훈이 어명야. 느가 나 손지 나 쥐시난 는 나 딸이여. 나 딸래기, 울지말라. 살암시민 살아진다이⁴⁰⁾

이명숙(며느리) : 어머니, 어머니 !!! (부둥켜 운다.)

시어머니 : 기여 기여 나 딸래기 올라, 울어불라. 저 백주할망 앞이서 다 울어불곡 앞으로 울지마랑 요망지고 다그지게 살라이⁴¹⁾

백주또의 오열과 마지막 대사는 오롯이 현실 속 우리 사회의 이야기다. 2014년 4월 16일 눈앞에서 배가 잠기는 데도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다. 신화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며느리 이명숙이 여신 백주또를 향한 비념은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해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비념이기도 하다.

이명숙: 백주 할망, 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산메도 준비하고 돌레떡도 하고 왔어요. 백주할망...절 받으세요. (절한다) 천년이 넘게 세상의 딸들을 보듬고 세상의 새끼들을 보듬었던 어머니, 백주또 당신께 빕니다. 꿈을 꾸는 아이들도, 꿈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40) 내 아들 아까운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 너는 많이 참았다. 나는 아들 하나 보고 참고 살았지만 나처럼 살라고 하지는 않겠다. 걱정말아라 지훈이 엄마야, 네가 내 손주를 낳아 줬으니 너는 내 딸이다. 내 딸, 울지말아라. 살다보면 살 수 있다.

41) 그래 그래 내 딸아 올라라. 울어버려라. 저 백주할머니 앞에서 다 울어버리고 앞으로는 아무지고 다부지게 살아라.

2) 무대에서 형상화한 원형

무대는 송당본향당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본향당의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신목(神木)을 표현하기 위해 소품으로 제작한 나무 뒤에 대형 걸개 막에 신령스런 나무의 이미지를 넣어 신령스럽게 표현하였다. 프롤로그에 현대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셋트를 구성하지 않았다. 마룻바닥과 거대한 신목의 이미지 그리고 제주를 상징하는 검은 돌로만 이루어진 무대는 영국 극작가 카를 처칠이 공동창작으로 역사를 재구성한 연극 <펜>과 같이 “무대가 우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며 현재가 아니지만 현재의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무대 배경의 메시지”이다(김나영, 42).

<그림 4 > 무대 사진



제주 곳의 연행 현장에서 심방은 옆에 앉은 소미라고 불리는 보조심방이나 연물을 담당할 약사들과 대사를 나눈다. 때로는 보조심방이 배역을 맡아 출연하기도 하고 약사들이 모두 함께 난장을 벌이기도 한다.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에서도 세 명의 약사가 등장한다. 세 약사는 연물을 치며 흥을 돋우기도 하고 때로는 백주

또와 소천국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한다. 백주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과 역을 담당하고 극의 중반에는 탈을 쓰고 무대에 나가 백주또와 소천국의 굶주린 아이들 역을 맡기도 한다.

<그림 5 > 탈을 쓰고 아이들 역을 하는 악사 채담꾼



굿판과 연극과의 상관성이 높기는 하나 무대와 굿판은 사실 판이한 곳이다. <천년의 사랑 백주또>무대에는 심방이 출연하지도 않고 굿판에서 보여지는 제의적인 절차도 없다. 다만 송당본풀이의 서사를 변용한 연극일 뿐이다. 그러나 무대의 세세한 미장센에서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있다면 본풀이 극으로서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연극 무대에서 굿판의 원형은 연극에 적합한 형태로 상징적으로 변용될 수 있다. 대사 하나, 소품 하나에서 원형의 상징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이 공동창작 팀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산신놀이가 그렇다. 산신놀이는 “사냥이라는 노동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현장극”(문무병, 2008, 149)인데 극에서 산신인 소천국이 사냥하는 장면을 산신놀이로 보여주었다. 사냥감의 대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닭 한 마리를 끈에 묶어 두 포수가 마사기총이라 불리는 옛총을

들고 나타나 악사들의 연몰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었다. 이는 소천국이 사냥의 신이라는 원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굿판에서 벌어지는 산신 놀이를 무대에서 재현한 것이다.

또한 에필로그에서는 시어머니의 대사에서, 프롤로그에서는 현대여성인 이명숙의 대사에서 원형을 반영한 노력이 나타난다.

시어머니 : 백주할망 오늘은 돌래떡도 못 허영 왓수다. 경해도 험다 송보지ampus. 나 어명도 할망추록 살고 나 할망도 할망추록 살았수다. 백년 천년을 할망추록 산 설룬 아기덜 아니우파? 애들지 말곡 송보지 말곡 영 빌엄시메 자이 우리 매누리, 나 딸 닳은 아이 좋게 허여 줍서. 우리 손지덜도 좋게 허여 줍서⁴²⁾

이 대사 중 ‘돌래떡’은 백주또가 미식신(米食神)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문무병에 의하면 “쌀로 만든 백시리, 백돌래는 농경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농경신은 미식신이며 고기를 먹지 곡물만 대접받는 깨끗한 신이다”(문무병, 2008, 85). 백주또는 농경신이며 미식신이라는 원형을 수용한 대사다. 이는 프롤로그에서 이명숙의 대사로 다시 이어진다.

이명숙 : 백주 할망, 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산메도 준비하고 돌래떡도 하고 왔어요. 백주할망 절 받으세요.....

여기서 산메는 논이 많지 않은 제주의 특성 상 밭에서 재배한 산디쌀로 지은 밥을 말한다. 모든 당신이 돌래떡이나 산메를 대접받지 않는다. 당신본풀이 중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쫓겨난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당주위에 돼지 턱뼈가 있는 당도 있다. 이런 신들을 다룬 극이라면 대사와 소품이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공동창작팀은 본풀이의 원형을 수용하고 변용함에 있어 원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대사 하나 소품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본풀이를 수용한 연극무대에서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창작이라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확

42) 백주할머니, 오늘은 돌래떡도 못 하고 왔어요. 그래도 뭐라고 흥보지 마세요. 내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살고 내 할머니도 (백주)할머니처럼 살았어요. 백 년 천 년을 할머니처럼 산 불쌍한 아이들 아십니까? 서운해 사지 마시고 흥보지 마시고 이렇게 빌고 있으니 재 우리 며느리, 나 딸 같은 아이 좋게 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도 좋게 해 주세요.

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당신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최초로 공동창작대본으로 연극무대에 올려진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제주어를 살리고 노래와 춤을 가미한 뮤지컬 연극으로 공연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도덕한 남편과 단호히 갈라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농사를 짓는 여신 백주또는 강인한 제주 여인의 모습이고 세상을 보듬는 이 시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그림 6 > 백주또 관련기사 - 시사제주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header with the SISAJEJU logo and navigation tabs for '뉴스', '교육', '문화사은세상', '참여행정', and '계시판'. The article title is '문화스포츠 제주 여인의 뿌리 '백주또' 연극무대로 올린다'. Below the title is a table providing details about the performance.

공연명	제주 동창작연극 "심들의 어머니 백주또"
공연일시	2014년 10월 30일 ~ 31일 오후 7시 30분 2014년 11월 06일 ~ 18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실종대 여성문화센터 / 세이레 아트센터
제작/주최	제주 문화 세이레 / 실종대 여성문화센터
기획	Mongoose Company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티켓가격	전석 30,000원

드외 루저 여인과 제주 여인이 차이를 무엇일까?

제주에서 80세가 넘어서도 들쭉날쭉 하고, 호미를 들고 일꾼 하고 있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가 많지만 아닌 지식에게도 의지하려하지 않은 강인한 제주여성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제주 여성의 근간이 된 문화들 '백주부' 혹은 '백주합창' 신화에서 볼 수 있다.

수업중학때 하던 남편 '소천부'를 자신의 전 재산 이었던 반지를 팔아 농사를 시작하게 했고, 남편 손을 쓸 처지 없었던 남편과 가차 없이 이혼을 하고 홀로 남편을 하고 자식을까지 볼뎀다. 하지만 전혀 부끄럼하지 않는다.

이것은 폐지에서 흔치 볼 수 없는 희극이다.

제주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성들이다. 그 중에 드 신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백주부'가 한 특무대를 포함한다.

<공민불거리>

* 기사 스크랩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00>

총 20 회의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평가가 나왔다. 그 중 대표적인 세 편의 공연평을 중심으로 연극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그림 7 > 관람평 - 블로그

아쉬움 또한 많았다.
제주의 신화,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여성 백주부,
백주부의 이야기를 무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오늘 무대 위에서 그들이 쓴 웃음 헉거워보였다.

어색한 노래, 짝을 투성이의 음향, AR을 동원한 질싱크,
극의 몰입을 깨는 아역 배우까지, 그리고 발생조차 안되는 앙타까움,
극의 흐름을 저해하는 과한 희극적 요소, 배역의 연병력스.

가장 큰 고민들이야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이들의 몫 것이다.
다만, 그 공연을 본 이들의 평가 또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주어 공연으로 제주의 문화 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준비된 가치 있는 시도,
그 가치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에서 안구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그들 또한 시도만으로 박수 받기를 원해서는 않았으리라.

영국 무대에 연출이 필요한 이유는,
무대에 선 배우가 가질 수 없는 넓은 안목으로
그들의 아픈 패부를 짚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니까.

내성 아쉬운 무대를 보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대 평가를 자제할 생각이 없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관람하며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다음 무대는 더욱 더 양창 무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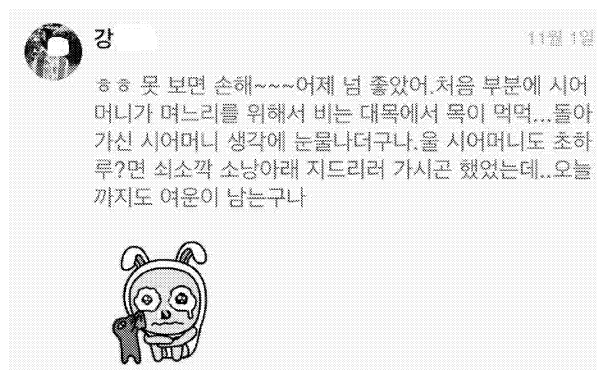
* 출처: <http://blog.naver.com/blueways?Redirect=Log&logNo=220167936031>

먼저 이 극은 노래와 춤을 가미한 뮤지컬 연극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우들의 역량이 부족했다. 앉은 자리에서 디지털 기기로 수준급의 공연물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에 아마추어 수준의 노래와 춤을 본 관객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낱 후한 음향기기를 통해 사전 녹음된 노래가 흘러나오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신화를 원형으로 삼은 문화콘텐츠 중 대작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뮤지컬 전문 배우가 없는 작은 극단에서 신화를 극화한 대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설공연장 역시 연극전용관이 아니다. 이렇게 취약한 기반 시설에서 수준 높은 신화극을 탄생시키는 것은 더더욱 버거운 현실이다.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오늘날 공연예술의 작품의 질은 그 투자에 비례한다. 두터운 전문 배우 층, 훌륭한 시설, 전문예술인의 육성 모두 투자 없이는 요원하다. 우리나라에서 신화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신들이 있는 곳, 그 신화들이 지금시대에도 구비전승되고 있는 곳이 제주다. 지역의 신화가 OSMU 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북유럽의 성공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제주이고 그 문화유산이 바로 본풀이임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지만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그것은 백주또신화가 갖는 서사의 힘이며 신화의 현대적의미를 살려낸 공동창작 극본의 힘이다. 신화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로고스의 시대에 잃어버린 감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화연극의 의미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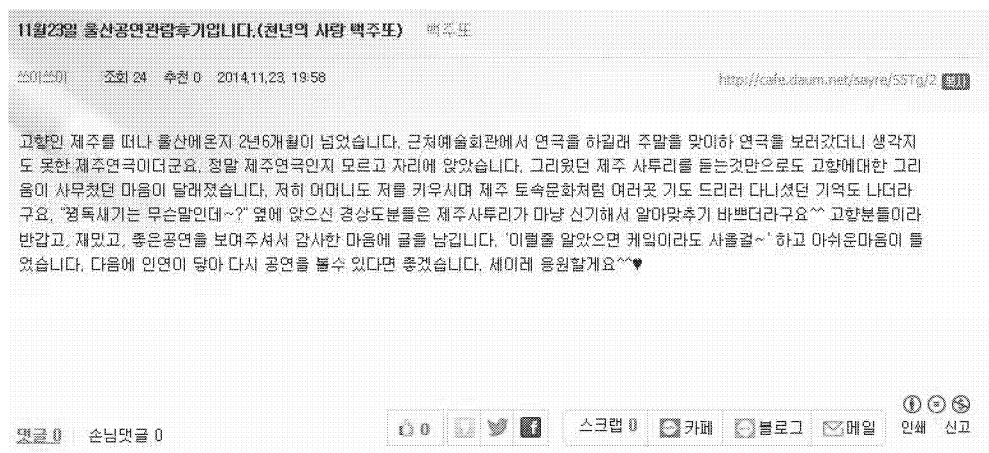
<그림 8 > 관람평 - SNS



* 출처: 다음 카카오톡

이 작품은 2014년 울산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에 초청된 바 있다.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작품을 관람한 제주출신 관객은 극단 인터넷 카페에 아래의 감상평을 남겼다. 제주어로 구성된 이 연극은 동심과 향수를 자극했고 여신 백주또와 그 여신을 닮은 현대의 여성은 관객들에게 자신을 키운 어머니와 고향을 떠 올리게 했다. 이것은 본풀이 연극, 그 중에서도 마을마다 좌정해 있어 우리네 어머니들이 간절하게 찾았던 당신본풀이 연극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림 9 > 관람평 - 극단카페



* 출처: <http://cafe.daum.net/sayre>

V. 결 론

제주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일반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눌 수 있다.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문화콘텐츠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는데 제주 곳의 샤먼인 심방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제주의 본풀이가 예술작품을 통해 전승되고 그 신화를 통해 우리 현실 속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아 제작된 대표적인 콘텐츠를 텍스트콘텐츠, 공연·전시콘텐츠, 시청각·디지털콘텐츠로 분류하고 고찰해 보았다. 본풀이를 활용한 상당수의 문화콘텐츠들이 세경본풀이의 자칭비를 비롯한 몇몇 일반본풀이에 편중 되어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자칭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신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다른 본풀이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생소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당신본풀이를 원형으로 삼은 콘텐츠를 상세히 고찰해 보았고 도내에서 제작된 본풀이 관련 공연물을 일일이 살펴보았다.

제주에는 마을마다 400여개의 당이 있고 마을마다 당신이 좌정해 있다. 모든 당신들이 당신본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하고 흥미로운 서사가 가진 설화형 당신본풀이도 상당하다. 더욱이 당신본풀이의 신들은 일반본풀이에 나오는 신들과 달리 자유롭고 본능에 충실하며 급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사가 있는 당신본풀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특히 당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여신 백주또는 자신이 직접 사랑을 찾아왔으며 그 사랑을 먼저 끝낸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여성이다.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자가 삼백 일흔 여덟이나 되는 다산의 신 백주또는 자신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사냥 대신 농사를 주장했다. 이 때 농사는 자식을 살리는 생계의 수단임과 동시에 자연을 살리는 생산수단이다. 백주또는 세상을 올바로 보듬기 위해 그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파괴와 살육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다. 남편 소천국으로 대변되는 그 세계관에 가차 없이 반기를 들었고 땅 가르고 물 가르듯 갈라서자고 선언하였다. 본풀이 속 그 어떤 여신도 백주또만큼 단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여신 백주또 이야기를 연극으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서사 분석을

통해 송당본풀이 백주또만의 변별력을 도출해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현대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연극은 굿과 상관성이 아주 높다. 굿은 제의적인 목적 외에 연희적인 목적이 있다. 굿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사면인 심방은 접신을 하는 영험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연기를 하고 춤을 추는 주연배우이기도 하다. 옆의 소무와 악사들은 조연배우가 되고 굿판은 무대, 신앙민인 단골은 굿의 관객과 같다. 그렇다면 굿의 현장에서 심방의 입을 전해지는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굿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이 대본을 원형으로 삼아 연극 극본을 창작하는데 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제 1유형은 본풀이 원작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극본, 제 2유형은 본풀이의 서사에 충실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하여 만든 극본, 제 3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본풀이를 합성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극본, 제 4유형은 본풀이의 모티브나 상징성만을 차용하여 작가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든 극본이다. 각 유형에 따른 작품의 예도 고찰해 보았으며 본풀이 원형을 충실이 담아 전승의 목적을 간과할 수 없는 제 1유형과 제 2유형은 공동창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신화가 공동창조물이기도 하지만 원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본풀이에 생소한 관객들에게 원형을 전승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는 본 연구자가 대본 공동창작에 참여한 최초의 당신본풀이 뮤지컬극이다. 이 연극은 송당본풀이 백주또 신화 중 아들인 케네기또 서사를 제외하여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 현대의 이야기를 가미시킨 액자형 연극으로 제 2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공동창작팀은 신화전문가와 작가, 연출가와 스토리텔러로 구성되었는데 서사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백주또만의 변별력과 현대적 의미를 극본 속에 구현하였다. 창작팀은 백주또의 이름마저 생소한 관객들이 대부분인 상황을 감안하여 대본과 무대장치 소품들에서 본풀이의 원형을 담보해 내기 위해 토론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전문배우가 없고 전용극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와 춤까지 담아내는 뮤지컬 연극으로 제작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공연의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대에서 여신 백주또를 만난 관객들

은 울곧고 단호한 선택을 했던 여신, 세상을 보듬는 여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식을 살리지 못한 백주또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며 신화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 당신본풀이를 포함한 많은 본풀이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풀이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연극으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작 여건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 본풀이가 가진 에스프리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선행되어 작은 규모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연극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경훈 (2014), 『그날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 각.
- 김경훈 (2014), 『제2마당극 대본집 소옥의 노래』, 각.
- 김병심 (2013), 『신, 탐라순력도』, 각.
- 마리아미스·반다나시바 (2003),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 문무병 (2003), 『제주민속극』, 각.
- 문무병 (2008), 『제주도본향당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 문무병 (2013), 『11월엔 그냥 젖고 싶어』, 각.
- 반다이크 (1995), 『텍스트학』, 민음사.
- 서연호 (1997), 『한국전승 연희의 원리와 방법』, 집문당.
- 서연호 (2006), 『한국연극진사』, 연극과 인간.
- 서연호 (2011), 『한국 공연예술의 원리와 역사』, 연극과 인간.
- 양영수 (2011), 『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재홍 (2005), 『팔녀각』, 한국소설가협회
-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 장성철 (2012), 『탐라설화이해』, 제주문화.
- 진성기 (1993), 『제주도무속논고』, 한국민속연구회.
- 찰스 리드비터 (2009),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 카렌암스트롱 (2005),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 허남춘 (2014),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서문문고.
-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논문》

- 강동균 (2014),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나영 (2001), 「카릴 처칠의 극에 나타난 공동창작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정 (2012),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영욱 (2010), 「문화원형을 통한 콘텐츠 개발 사례와 공연예술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다니엘 키스터(1995), 「Korean Shaman Rites in the Light of the Dramatic Theories of Antonin Artaud」, 『한국민속학보 제6호』, 민속원.
- 백성과 (2004),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서동원 (2009), 「문화콘텐츠 OSMU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 소홍삼 (2008), 「공연예술 공동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 송태현 (2009), 「신화와 문화콘텐츠-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 22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신현숙 (2001), 「아르토의 잔혹극과 굿의 비교연구 1」, 『한국연극학 제16호』, 한국연극학회.
- 유예 (2015), 「원천소스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연구-웹툰 <신과 함께>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대영 (2012), 「제주 4·3장편소설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어문연구 제 71호』, 어문연구학회.
- 이대훈 (1998), 「무극의 무대적 수용에 관한 고찰-“오구-죽음의 형식”, “무녀도”, “산셋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이상일 (1990), 「오구-죽음의 형식, 점아 점아 콩점아」, 『공연과 비평, 한국연

극 제170호』, 한국연극협회.

이연주 (2006), 「산오구굿의 현대 극 장르 수용 연구 : 이윤택의 <오구-죽음의 형식>과 영화 <오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함재민 (2013), 「<보컬로이드>의 집단창작문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웹사이트》

극단세이레 <http://cafe.daum.net/sayre>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ways?Redirect=Log&logNo=220167936031>

뉴스컬처 http://newsculture.heraldcorp.com/sub_read.html?uid=46704

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00>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080813151113681>

제주문화포럼 <http://blog.daum.net/jejumythart/13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부록 1] 공연 리플릿

1면 리플릿 전면



2면 연출의 변

연출의 변

술당 분향당 백주또는 제주어인들이 말 할 수 있었던 미물신들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 어머니도 그랬고, 가족들의 안락과 하는 일에 대한 기원을 빌기 위해 찾았던 마을 당신, 백주또.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무신들이지만 인간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신랄 저울, 혼란에 빠진 인간 세상에서 문제의 기막을 잡아주는 해질사로 천년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어준 이다. 오로지 자기를 부리며 울고 있는 여인에 곁에서 곁이 눈물 흘리고 고통을 같이 아파해주는 백주또는 우리 제주어인들의 어머니다. 백주또, 고된 울당 속에서도 결코 풀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 여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흥겨와 자유와 창조와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나갔던 여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알까? 멋진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 인게 이 공연이 여전히 살아있는 여신들의 이야기로 자리매김 되기엔 건질까 봐야한다.



연출 정민자



3면 작가의 글

작가의 글 공동창작 이재숙 김정이 정민자

'Oh my god!'을 제주어로 비한다면 '아이고 어망애가 아날까? 기쁘거나 슬플 때, 놀랄 때나 인도할 때 부르는 '아이고 어망야. 여기에서 어망은 내 어머니이자 절대신이다. 우리는 연극 <천년의 사랑 백주또>를 통해 일만 팔 천 제주의 신 중 가장 '내 어머니 같은 신'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여신 백주또는 기다림과 눈물로 존디명(건디며) 살았던 옛날 어머니와는 다르다.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섰다. 침승의 피와 살을 노리는 사냥이 아니라 씨뿌리며 거두는 농사가 사람이 살 길임을 주장했다. 자신의 뜻이 옳다면 굽히지 않았다. 단호히 갈라섰다. 그러나 그녀 백주또는 우리들의 어머니다. 내 배가 굶어도 자식의 주린 배를 채우려 한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전사가 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식을 떠나보내고 흘리는 눈물과 절규는 오롯이 이 시대의 어머니 모습 그대로다. 그래서 백주또는 제주 당신(堂神)의 어머니고 연극을 관람하는 당신들의 어머니다.

4면 출연 / 스텝

출연			스텝
			공동창작·감독 이재숙, 김정이, 정민자
			공동연출 이재숙, 김정이, 정민자
			공동제작 이재숙, 김정이, 정민자

5면 작품줄거리

작품줄거리

육지에서 제주로 사집와서 20년째인 "이명숙"은 남편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이혼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하수원 하며 국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가슴속에 묻은 것 다 털어놓고 가라면서 송당 에 찾아가면서 "백주또" 미야기가 펼쳐진다.

백주또가 제주에 와서 길을 찾아 헤메다가 송당을 들어선다.

길을 묻는 백주또를 포수기 걸건을 하러갈 때 사당관인 소천곡이 구해주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어 한 살림을 차리게 된다.

하지만 남편 소천곡의 성과 왕은 수렴성황과 나날이 식솔들은 궁핍해져만 간다.

이에 백주또는 남편 소천곡에게 농사를 재안하고 자신의 잔뿌리 찹가라지를 내어주며 소를 장만하도록 하고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를 시작한 소천곡을 위하여 점심을 백주또가 만들어왔지만 그 밥은 길 거던 증이 다 뱉어 버렸고 소천곡은 농사 밭엔인 소를 잡아려고 급가아 이웃집 소까지 먹어버린다.

이것을 알게된 백주또는 남편 소까지 잡아먹는 도둑과 같이 뭇산다며 일한 중 이혼을 선언하고 출도 서기를 한다.

일한 중이던 백주또는 아들을 낳게 되고, 홀로 자식을 돌보며 살아가던 중 아들(제네이 또)은 태어난 근본을 알아줬다면서 자기를 아버지께 데려달라고 한다. 이에 백주또는 아들을 소천곡에게 데려가지만 아들은 집과 살림을 하고 있는 소천곡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게되고 아들을 안아보고자 한 소천곡에게 제네이 또는 바닷물은 행동(수업)을 댈다든지 가슴을 치는)을 하게된다.

이에 짙은 소천곡을 부추기고 소천곡은 화가 풀 같이 나서 버릇없는 놀이러면서 무척석찰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린다.

[부록 2] <천년의 사랑 백주또> 공연 관련 사진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울산에 걸린 공연 홍보물



3. 전통문화엑스포 - 제주컨벤션센터



4. 관객과 함께



